

광 고

원양산업

제 1149 호

(2022년 9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2022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최종 타결 / 4
- 한국-투발루, ODA 협의 및 참치선망 입어협상 / 5
- 원양 오징어채낚기 업계, 포클랜드제도 수산청장·항만청장·대방사 초빙, 간담회 등 개최 / 6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2년 8월 보고 내용 / 7
- 요리 만들기 (황태구이) / 11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달 대비 1% 상승 / 12

■ 참치어업 동향

- 중서부태평양 7월 가다랑어 어획량 급감 / 14
- PNA 항구, 7월 전제 활동 증가 / 14
- 방콕 가다랑어 가격 1,800 달러 / 15
- 태국 상반기 참치캔 수출액 26% 증가 / 15

- 태국 상반기 참치 원어 수입 약 36만톤 / 16
- 태국, 상반기 황다랑어 수입액 40% 증가 / 16
- CAB, PNA 어업 MSC 관련 평가 정당 / 17
- WCPFC 과학관리대화 개최 / 17
- 美, 태평양 도서국과 정상회담 추진 / 18
- 키리바시 경제, 참치 어업 의존도 지나치게 높아 / 18
- 투발루, 불법 조업 방지 위해 EEZ 위성 스캔 / 19
- NOAA, "태평양 참다랑어 개체수 반등" / 19
- 日 6월 냉동 참치 원어 수입 통계 발표 / 20
- 日 7월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반입량 급감 / 21
- 日 도요스시장 냉동 눈다랑어 kg당 1,265 엔 / 21
- 에콰도르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11% 감소 / 22
- 중국 어업회사, 참치 선망선 2척 건조 / 22
- 해바라기유 가격 정상화 시작 / 23
- 소금 가격 상승에 선망선 선주 부담 늘어 / 23
-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상승, 1,525 유로 / 24
- 하와이 참치 연승어업 MSC 인증 취득 / 24
- 그린피스, 범블비 참치캔 공급망에 문제 제기 / 25
- 필리핀, 영국에 참치캔 무관세로 수출 가능 / 25
- FAO 글로벌 전제 지침 승인 / 26
- 오만 기업, 황다랑어 개선 프로젝트 참여 / 26

Contents

- 테스코, 공급망에서 100% 옵서버 커버리지 원해 / 27
- 日 마루하니치로, 참치 제품 등 가격 인상 / 27
- 英 Princes, 참치캔 100% MSC 인증 조달 목표 / 28
- 미국 저소득층, 참치캔으로 소비 전환 / 28
- 스페인 Calvo, 참치 조달 2/3 지속가능 / 29
- 스페인, 참치 선단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29

■ 오징어어업 동향

- 포클랜드 Beauchene Fishing, 신규 트롤선 건조 / 30
- 아르헨티나 7월 일렉스오징어 수출 급증 / 30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명태 H&G 가격, 中 수요로 빠르게 상승 / 31
- 러시아 수산청장, 투자쿼터 제2탄 추진 강행 / 31
- 中 더블프로즌 명태 필렛 가격 상승 / 32
- Gidrostroy, 러시아 명태 쿼터 지분 매입 / 32
- 명태 제품 세계 수요 증가 추세 / 33
- 러시아-중국 쿠릴 열도 수산협력 추진 / 33
- 러시아 36주차 냉동어류 가격 상승세 / 34
- 러 연구기관, 홋카이도 부근 명태·청어 자원 고수준 / 34
- 노레보 유럽 지부 매출·이익,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 / 35
- 알래스카 명태 선단, FISH 노동 인증 취득 / 35
- 오메가-3 어유 시장, 알래스카 명태 신규 영역? / 36
- 러시아 극동 지방, 냉동참고 시설 부족 극심 / 36

■ 공치어업 동향

- 日 공치 봉수망 중·소형선 첫 양륙 / 37

- 러시아, 공치 조업 아직 미개시 / 37
- 日 냉동 공치 2022년 6월 말 재고 5,006톤 / 38
- 日 공치 봉수망 대형선 올해 첫 양륙 / 38

■ 각국 수산 동향

- 드라이 컨테이너 운임 개선, 리퍼 위태 / 39
- 美 상원의원, IUU 연루 선박 블랙리스트 법안 발의 / 39
- 인도네시아, 자국 선원 고용국과 선원 보호 협정 추진 / 40
- 노르웨이, 8월 수출실적 사상 최고치 기록 / 40
- 미국, 인플레이션으로 신선·냉동 수산물 매출액 감소 / 41
- 터키 Cemre 조선소, LNG 원양어선 건조 / 41
- FAO, 10년 후 수생 동물 생산량 14% 증가 / 42
- EU 소비자, 수산물 가격 폭등에 직면 / 42
- 수산물 수입 상위국, EU, 미국, 중국, 일본 순 / 43
- BBNJ 체결 무산 / 43
- 33주차 노르웨이 고등어·청어 가격 다시 상승 / 44
- 북동대서양 고등어·청어 생물량 증가 / 44

■ 쉬어가는 난 (시)

- 바다 일기 <이해인> / 45

■ 국내 수산 정보

- 8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6
- 8월 명태 국내 동향 / 48
- 해수부, WTO 수산보조금 협정 영향분석 추진 / 50
- 2021년 어선 65,531척, 전년대비 213척 감소 / 50

2022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최종 타결 월 고정급 15만원 인상, 1인 몫 월 253만원 보장 합의

2022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다.

우리 협회(노사위원장 이명우)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은 지난 9월 2일 노사 임금 협정 조인식을 갖고 우리 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보유한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선원들의 2022년도 임금협정서 및 부속(업종별) 협정서에 서명했다.

2022년도 임금협정서에서 월 고정급은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에서 월 15만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에 한하여 1.0인 몫 월 2,530,000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에 대하여는 최저 인몫을 승하여(곱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주부식비는 1인 1일 12,000원으로 2,000원 인상했다.

2022년도 임금협정서 시행 시기는 월고정급과 보장급의 경우 2022년 6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되 협정일 현재 계약 종료한 선박이나 퇴직한 선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주부식비 관련 사항은 협정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원양노사는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 외에 참치연승, 참치선망 업종에 적용되는 추가 협정서에 서명했다.

참치연승 업종은 연장조업수당 지급을 적용에 사



용되는 연장조업기간 기준을 구간마다 1개월씩 앞당기기로 했다(예를 들어, 18~21개월 미만 → 18~20개월 미만). 연장조업수당 지급율은 연장조업기간 구간별 기준에 따라 가산된다.

참치 선망 업종은 전재작업을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 전에 종료하도록 했다.



한국-투발루, ODA 협의 및 참치선망 입어협상

피지 수바에서 9.5 ODA 협의, 9.6~7 입어협상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 협의」가 지난 9월 5일, 「2023년 어기 한-투발루 참치선망 입어협상」이 9월 6~7일, 피지 수바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와 투발루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ODA 사업 추진 계획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발루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참치선망선들의 입어조건을 협의했다.

ODA 사업 협의는 최근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23~'26)으로 2023년 예산 20억이 확보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아울러, 우리 측은 투발루 측에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지지를 당부했다.

〈ODA 사업 협의〉

ODA 사업 협의에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이성재 사무관(수석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채종영 차장, 동원산업 박상진 상무, 사조산업 이경영 부장, 신라교역 김민섭 대리, 우리 협회 최봉준 과장, Mr. Nikolasi Apinelu 수산부 차관 Mr. Samasoni Finikaso 수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투발루 측에 2023년 3월 현지조사, 11월 착공식 등 향후 추진 일정을 알리고 상세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동 ODA 사업의 주요 내용은 커뮤니티 센터 및 소형 부두 건설, 어시장 리모델링, 투발루 선원 및 옵서버 역량 강화이다.



투발루 측은 우리 측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사업 우선순위, 유지보수, 부두 입지·설비, 전문가 파견·기숙사, 장비 운반·통관 등을 협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발루는 커뮤니티센터 내 창고 설립이 가장 우선임을 강조했고 소형 부두 길이 축소를 요청했다.

〈입어협상〉

입어협상에는 우리 정부측을 제외한 앞선 ODA 회의 인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허가척수, 조업일수, 일일 조업 가격, 입어료, 전매 조건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으며, 오는 12월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제19차 중서부태평양 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에서 일부 입어조건 재협의 및 입어 약정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양 오징어채낚기 업계, 포클랜드제도 수산청장· 항만청장·대방사 초빙, 간담회 등 개최 2023년 포클랜드제도 입어 정책 동향 파악 및 협의

영국령 포클랜드제도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 오징어 출어선사가 2023년 어기 입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의하기 위해 포클랜드 수산청장, 항만청장, 대방사, 선박 컨설턴트를 초빙했다.

이번에 포클랜드측 방한 인원은 안드레아 클라우센 수산청장, 조 콕스 항만청장, 포클랜드 대방사 2개사 2인(드라곤사 대표 캐롤린 웬디셔번, 씨피쉬사 해미쉬 와일), 마린 컨설턴트사의 나이젤 블리에즈비 컨설턴트 등이다.

이들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며, 우리 협회·업계, 해양수산부, 한국선급·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관련 건을 협의했다.

9월 1일에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포클랜드 수산청장·항만청장과 오징어채낚기 업계 간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클랜드 수역 조업 및 허가정책(수산청장), 한국 오징어채낚기 업계의 채낚기 업종 경영현황 분석(선민수산 민일기 대표), 포클랜드 선박검사 및 2023년 어기 요건(항만청장), 한국선단·선박 현황(컨설턴트)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질의 응답 및 관련 건 협의가 진행되었다.

수산청장은 2023년 어기 시 준수 사항을 당부하고 장기허가 및 양도성개별할당제(ITQ)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수산청장은 현재 ITQ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업계와 같이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쿼터 보유 기한을 최대 25년으로 하고, ITQ 권한자는 포클랜드 현지인으로 하며, ITQ에 의한 어획은 ITQ 권한자·



합작사(현지인 지분 51% 이상)·용선계약자로 하는 사안 등을 현재까지 검토 중이나, ITQ 전면 적용 전 중간과정·연착륙 방안으로 현지인 지분을 25%로 하는 잠정 ITQ(PQ)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항만청장은 2023년 어기 입어 신청에 필요한 토레몰리노스 협약 준수와 관련된 증명서(성명서)를 설명하고, 선박에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를 요청했으며, 2024년 어기에 어선원노동협약(ILO C188)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해양수산부 이규선 과장과 포클랜드 수산청장과의 협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FAO41 해구 공해어업관리 및 RFMO 설립 관련 입장을 공유하고, 포클랜드 ITQ 제도 도입에 따른 합작·용선 등 관련 문제점을 검토했으며, 어획정보교환 등을 위한 정부간 MOU 체결 등을 협의했다.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8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관

가. Ndayane 개발을 기다리는 다카르 항구

- 1865년에 건설된 다카르 항구는 계속해서 변화해 오면서 혼잡해졌음.
- 수도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져 있는 미래의 심해 항구 Ndayane는 경제특구로 지정될 예정으로 다카르항의 일부 역할이 이전될 것임.
- Ndayane항 프로젝트는 지난 1월에 시작되었음.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474
	1.8kg	1,425
	1.5kg	1,277
황다랑어	10kg	1,621
	3.4kg	1,523
	1.8kg	1,425
눈다랑어	10kg	1,474
	3.4kg	1,474
	1.8kg	1,425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354 유로/MT	경유	'22.8.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관

가. 투발루 ODA 프로젝트 미팅 및 입어협상 지원

- 일시 : '22.09.04~09.08
- 장소 : 피지 수바 써든크로스호
텔 컨벤션룸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10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420달러/MT	MGO	'22.9.9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평균 어획율은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2~0.5톤임.



나. 코로나19 관련 사항

- 마스크 착용을 장소 관계없이 해제, 양성자는 10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감염자와 접촉한 자는 5일간 마스크를 써야함.
- 사모아 입국 시 10일전 TALOFAPASS에 선등록해야 하고, 백신접종 완료자(음성인자)는 하와이에서 72시간 대기 없이 입국할 수 있음.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4.41(gallon)	'22.9.8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새로운 정책

- 육류 및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더욱 용이하게 인력을 보충할수 있도록 태평양 국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중위임금 \$27보다 낮은 \$24~26 지급 가능토록 정책을 수정했다. 이로 인해 추가 12,000명의 인력이 뉴질랜드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뉴질랜드 해양 열파(Marine Heatwave) - 해수면 온도 관측 이래 최고치

- 아직 수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2017~18 제한된 구역에 극심한 온도 상승이 있었을 때 홍합과 켈프(다시막과에 속하는 대형 해조류)에 큰 손실이 있었고, 저온층 어종은 데워진 구역 밖으로 이동하는 등 피해가 컸었다.
- 따라서 해양 열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수면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면 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Z	1,451달러/MT	MGO	'22.9.6

라.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HOKI	2L	2,900	Sea Jho Co LTD.
	L	2,900	
	M	2,650	
	S	2,400	
HAKE	3L	4,950	
	2L	4,000	
	L	3,550	
	M	-	
	S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가. 신임 어업위원회 위원장 임명

- Fred Kwesi Antwi-Boadu가 얼마전 전직 해임된 Michel Arthur Dadzie 전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수산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음.
- 수산양식개발부(MoFAD) 홍보담당관 Karimatu Anas는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신임 위원장의 임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 어업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기관이면서, MoFAD의 실행 기관임.
- 위원회는 수산물에 대한 보건, 어로 활동, 안전 및 품질 보장을 포함하여 가나 어업 개발 및 관리의 모든 영역에서 모니터링, 통제, 감시, 평가 및 준수 기능을 담당함.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2,300	
	10kg 하	1,840	
가다랑어	3.4kg 상	1,450	
	1.8kg 상	1,400	
	1.5kg 상	1,250	
	1.5kg 하	1,100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1,220달러/kl	MGO	'22.8.31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관

가. 새 수산부 장관

- 제1 다수당인 PANGU Party의 파트너 중 ULP(United Labor Party)의 의원 중 중국계인 Mr. Jelta Wong이 새 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되었음.
- Mr. Jelta Wong은 이전 정부에선 보건부 장관을 역임했던 자로, 전 수산부장관 Dr. Tom Lino와 맞교환하는 형태가 되었음.
- 중국계 신임장관은 많은 화교 및 중국인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음.
- 점차적인 중국인의 PNG 진입이 대세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Mr. Wong이 수산부를 맡게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변화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됨.
- 이번 수산부 장관은 취임식을 통해서 자국 수역을 불법 조업으로부터 수호하겠다고 천명을 표한바, PNG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한 순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강화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나. VD(Vessel Days) 이전 실패

-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고시했던 원양협회 및 소속회사들의 PNG로의 VD Transfer는 현재까지 진행을 볼 때 실패한 것으로 보임.
- 현지 수산청에게 VD는 청의 주수입원으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 사업가보다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당사국의 선거 및 수산청장의 이취임 등이 겹치고, 코로나가 완



화됨에 따른 담당자들의 빈번한 출장 등으로 원양협회 등 한국 업체들이 대처를 하기엔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현재 참치의 이동으로 많은 어선들이 마이크로네시아 및 키리바시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보임.
- 하지만, 운반선의 PNG 진입은 여전히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아마도 선원들의 입·출국에 있어서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이 있고, 현지의 라바올항이 남태평양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규격	기타
활 바다가재	31.24달러	0.6~1kg	
	39.76달러	1~1.5kg	
	51.12달러	1.5kg 이상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1.0513달러/리터	Diesel	'22.9.8

〈게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황태구이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황태포 1개, 대파 흰쪽 1개,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쪽파 2줄기, 소금 약간, 통깨 약간

<양념장 재료>

고추장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고춧가루 3큰술, 참기름 1큰술, 양조간장 2큰술, 설탕 4 작은술, 통깨 1큰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황태포 대가리, 지느러미, 꼬리를 자른 후 1시간 동안 소금물에 담가둔다.

- ② 대파, 청고추를 다진 후 홍고추와 쪽파는 송송 썬다.
- ③ 양념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고 다진 2를 넣어 섞는다.
- ④ 마른 팬에 손질한 황태를 앞뒤로 구운 후 3의 양념을 앞뒤로 세 번씩 발라가며 구워 준다.
- ⑤ 4의 황태를 6등분으로 자른 후 홍고추와 쪽파를 올리고 통깨를 뿌려 완성한다.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달 대비 1% 상승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원유 가격 다시 상승할 수 있어

최근 유가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도입, 이란과 서방의 핵 합의 타결 가능성 하락 등의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9월 13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2.51 달러, WTI 가격은 87.31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93.17 달러를 기록했다.

9월 12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1.035 달러로 8월 12일(1.025 달러) 대비 1% 상승했다. 9월 평균(9.1~9.12) 가격은 1.039 달러로 8월 전체 평균 대비 1% 하락했다.

2021년 8월 전체 평균과 비교해서는 70%, 2020년 8월과 비교해서는 204% 상승했다.

2022년 평균(1.1~9.12) 가격은 1,057.5 달러로 2021년 전체 평균 대비 81% 상승, 2020년 평균 대비 174% 상승했다.

시장의 향후 유가 전망은 다양하다.

지난 11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연말에 미국인들이 다시 휘발유 값 상승을 걱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글쎄, 그럴 위험은 있다"면서 "그런 리스크에 대비해 우리는 휘발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겨울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할 것이고, 러시아가 유조선을 통해 원유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런 요인들로 인해 원유 가격이 다시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13일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유지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가 올해 4분기에 주춤했다가 내년에 다시 강하게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현지시간 14일 발표한 월간 석유보고서를 통해 "세계 석유 수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기 둔화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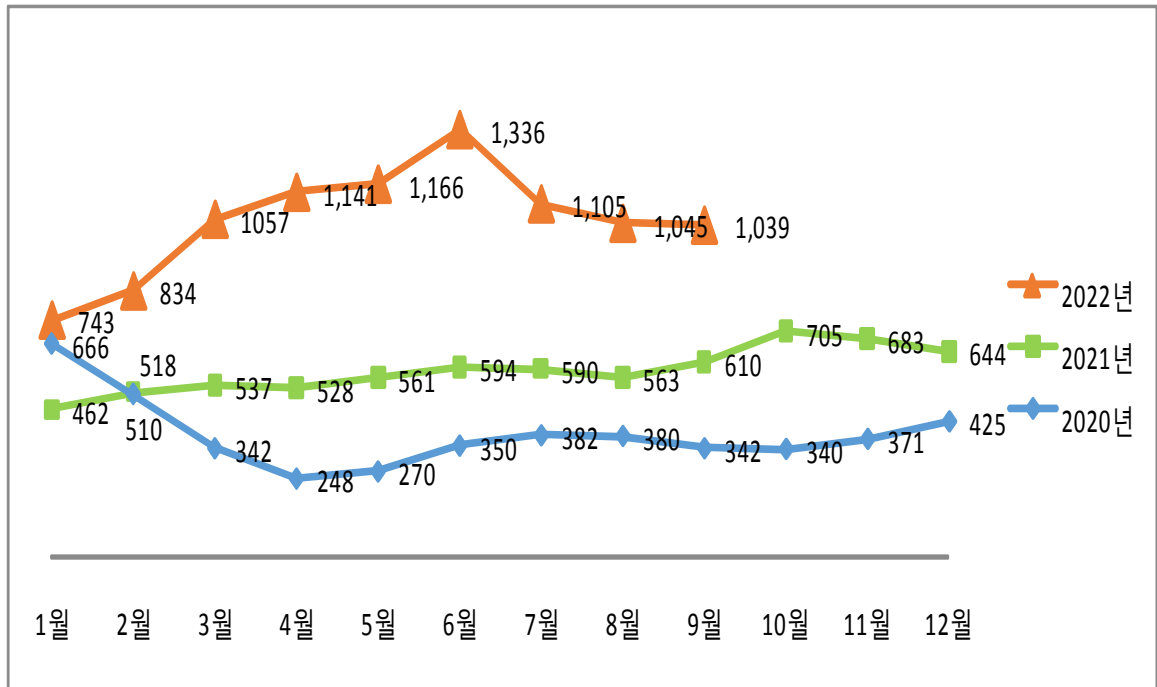
또 러시아가 연말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러시아 석유 금수조치에 따라 석유 수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로 인해 내년 2월까지 일일 석유 생산량은 950만 배럴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브렌트유와 WTI 가격의 4분기 전망치를 각각 배럴당 95달러, 91달러로 기존의 100달러, 97.50달러에서 하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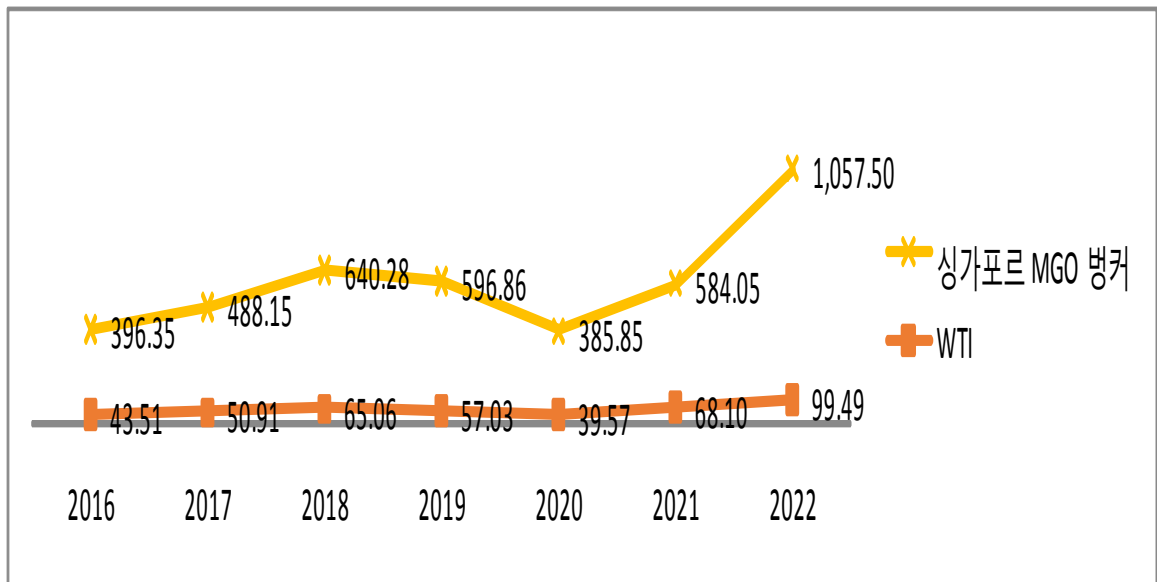
모건스탠리의 전략가들은 보고서에서 "원유시장은 구조적으로 타이트하지만, 현재는 주기상 수요 역풍이(이러한 구조적 타이트함) 상쇄한다"라고 말했다.



월 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연 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 '22 9월 가격(9.1~12), '22 가격(1.1~9.12)



중서부태평양 7월 가다랑어 어획량 급감

PNG 조업 노력 집중 계속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가다랑어 어획량은 PNA EEZ와 공해에서 조업 노력이 증가했지만 급감했다. 7월 총 어획량은 8만 7,809톤으로 6월 13만 3,570톤 대비 34% 감소했다. FAD 조업 금지의 영향으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조업 노력은 몇 달 동안 서쪽에 집중되었다. 파푸아뉴기니(PNG) 수역에서 조업 노력이 4개월 연속 집중되었고 7월에는 총 조업노력에서 53%를 차지했다. 아울러, 선망선 선장들은 참치를 찾기 위해 배머리를 마이크로네시아, 마셜제도로 돌렸다.

수역별 어획량을 보면 PNG 수역에서의 어획량이

5만 5,442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62%를 차지했다. 마셜제도 EEZ에서의 어획량도 좋았다. 반면, 키리바시와 같은 동부 수역의 어획량은 좋지 않았다.

7월 일일 평균 어획량은 22.5톤으로 6월 30톤 대비 급감했지만 2019~2021년 7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형 황다랑어 및 황다랑어 치어 어획량도 급감했다. 대형 황다랑어 일일 평균 어획량은 거의 1.5톤 수준으로 감소했다. 황다랑어 치어는 2톤 아래로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23일

PNA 항구, 7월 전채 활동 증가

6월 대비 약 10% 증가

최근 나우루협정당사국(PNA) 국가 항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7월 PNA 항구 참치 전채량은 6만 5,602톤으로 6월 5만 8,850톤 대비 약 10% 증가했다. 또한 선망선 조업이 파푸아뉴기니(PNG) EEZ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채 물량 또한 PNG 항구에 집중되었다.

선망선단은 FAD 금지 기간이 발효되기 직전인 6월 말 이전까지 최대한 FAD를 활용했다. 이후 이들은 스쿨조업으로 수 주 동안 조업한 후 전채했다.

전채량 증가는 이러한 이유로 설명이 된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7월 초 전채량이 증가하고, 7월 말부터 9월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PNG 항구 전채 물량은 전체의 56%인 3만 6,737톤을 기록했다. 어획이 PNA 서부에 집중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마이크로네시아 및 마셜제도 항구의 전채량은 증가한 반면 키리바시 등 동부 항구 전채량은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24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1,800 달러 몇 주간 유지해온 1,700 달러 대비 6% 상승

방콕 최신 소식에 따르면 방콕 냉동 가다랑어 원물 거래가 대부분 톤당 1,800 달러에 이뤄지고 있다. 이는 몇 주 동안 유지된 1,700 달러에서 6% 상승한 수치이다.

현재 시장 상황은 낮은 수요와 느린 공급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다랑어 가격은 일반적으로 9~10월에 하락하고

11월까지 하락 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FAD 조업 금지 조치는 일반적으로 9월 30일에 종료된다.

태국 가공업자들은 현재 가격 하락을 예상해 구매를 꺼리고 있다.

7월에 PNA 항구에서 전채된 물량은 대부분 방콕에 도달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12일자

태국 상반기 참치캔 수출액 26% 증가 수출량 9% 증가

태국의 참치캔 수출은 지난해 감소한 후 올해 상반기에 회복했다. 총 수출 금액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나 증가했다.

수출량은 9% 증가한 24만 2,040톤, 톤당 평균 수출금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 상승한 4,310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의 수출량 상위 국가는 미국(4만 7,177톤, 11% 증가), 이집트(3만 8,954톤, 16% 증가), 리비아(2만 215톤, 176% 증가), 호주(1만 9,028톤, 13% 증가), 일본(1만 3,146톤, 2% 감소), 캐나다(1만 3,079톤, 3% 증가)이다.

리비아로의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1만 2,887톤)했다. 리비아는 태국의 상온 보관 참치 제품 관련 큰 수출 시장이지만 최근 몇 년간 불안한 정치 및 안보 상황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웠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2021년에 감소하며 과도한

재고 수준을 소화한 후 올해 상반기 증가했다.

이집트로의 톤당 평균 수출금액은 3,016 달러로 수출량 상위 국가 중 가장 낮았으나 지난해 동기 대비 18% 상승했다.

예멘으로의 수출량은 53% 감소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페루로의 수출은 가장 크게 감소(68%)했다. 페루는 국내 통조림 가공 산업 촉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콰도르 산을 더 많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태국의 참치 원어 수입량이 5%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치캔 판매 증가는 태국 참치캔 가공업체들이 2021년에서 이월된 재고가 충분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의 가다랑어 원어를 더 적게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19일자



태국 상반기 참치 원어 수입 약 36만톤

약 5% 감소...3~6월 가격 상승 원인

태국의 2022년 상반기 참치 원어 수입은 5% 감소한 36만 3,428톤을 기록했다. 3~6월 동안 가다랑어 가격이 높은 수준을 기록해 가다랑어 구매가 감소한 것이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관측된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또한 같은 추세를 따랐기 때문에, 가공업자는 원어 구매에 대해 약 30%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다.

중서부태평양의 어획량 부족으로 인해 태국의 대만, 한국, 마이크로네시아산 참치 수입량은 2021년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 대만산 수입량은 6만 3,886톤(17% 감소), 마이크로네시아산은 4만 8,585톤(25% 감소), 한국산은 2만 8,517톤(41% 감소)을 기록했다.

나우루, 키리바시, 마셜제도 등 중서부태평양산 수입량도 감소했으나, 바누아투산 수입량만 증가했다. 나우루산 수입량은 3만 3,369톤(4% 감소), 키리바시산은 2만 1,796톤(13% 감소), 마셜제도산은 1만 2,734톤(27% 감소)을 기록했다. 바누아투산 수입량

은 2만 6,899톤(32% 증가)이었다.

중서부태평양산 공급 부족은 스페인이 관리하는 세이셸 또는 스페인 국적 선망선이 어획한 인도양 가다랑어로 대체되었다. 태국의 2021년 상반기 스페인산 수입량은 98톤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만 7,514톤을 기록했다. 프랑스산 수입량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146톤에 불과했으나 2022년 상반기에는 9,621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상반기 미국산 수입량은 99톤으로 사실상 소멸된 수준이다.

투발루는 새롭게 떠오른 태국 수출국이다. 태국의 투발루산 참치 수입량은 1만 6,107톤으로 지난해 대비 1만톤 이상 증가했다. 수입 단가는 톤당 1,847 달러로 태평양 도서국산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솔로몬제도산 수입량은 1,296톤, 수입 단가는 톤당 1,874 달러였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15일자

태국, 상반기 황다랑어 수입액 40% 증가

대만산 33% 증가, 한국산 43% 감소

2022년 상반기 태국의 냉동 황다랑어 원어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5% 증가한 4만 9,539톤이었다. 수입 금액은 황다랑어 가격 상승으로 40% 증가한 1억 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혜자는 대만으로 태국으로의 수출량이 33% 증가했으며 수출 평균 금액이 2,425 달러로 타 국가에 비해 높았다.

참치 채낚기로 어획된 물량인 몰디브산은 인도네

시아산 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산 대비 평균 수입 금액이 850 달러 더 낮았다.

나우루산 수입량은 49% 증가한 5,394톤을 기록했다. 대만산, 마이크로네시아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며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했다. 한국산과 중국산은 각각 43%, 61%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17일자



CAB, PNA 어업 MSC 관련 평가 정당

IA의 HCR, FAD 어업 평가 이의제기에 대한 응답

지난 7월 독립 심사관(IA)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관 리위원회(MSC) 인증 어업인 PNA 어업에 대한 최종보 고서 초안을 환송하고 적합성평가기관(CAB)에 두 가지 지표, 어획통제규칙(HCRs)과 FAD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수 재평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CAB인 Lloyd's Register는 8월 15일 최 종보고서에 따른 합격 점수가 정당하며 특히, PNA FAD 어업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관 리조치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AB는 HCR와 관련해서 주요 사항이 MSC 요건을 중심으로 다뤄졌다고 말했다. 어류 자원이 최대지속생 산량(MSY)을 만족하는 생물량 미만으로 감소하기 전 에 WCPFC가 HCR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합의 또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CAB는 "IA가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단일 문구를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 없을 것이지만, MSC SA2.5.3b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특정 구속력 있는 약속이 존재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CAB는 PNA 어업의 FAD 사용 현황을 추가 로 조사하고 서식지 관리 전략에 대한 점수를 재평가한 결과, 기존 점수인 60점이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CAB는 PNA 참치 FAD 어업 인증이 진행되어 야 하며 연간 감사 절차를 통해 중서부태평양 눈다랑 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에 대한 WCPFC 관리 규정에 따른 FAD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다고 결론지 었다.

IA는 이러한 CAB 응답해 대해 10일 이내에 확인하 고 보고서를 받아들이거나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22일자

WCPFC 과학관리대화 개최

퓨 자선신탁, 회의 성공적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과학관리대 화(Science Management Dialogue) 회의가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회의 참가자들에 따르면 가다랑어에 대한 잠재적 어획통제규칙(HCRs) 목록을 좁히기 위한 선호를 표 명하고 추가 과학적 분석을 위한 여러 영역을 식별해 진전을 이뤘다.

퓨 자선신탁은 성명에서 회의가 성공적이었고 3개 월 후 개최되는 WCPFC 연례회의에서 예정대로 참

치 관련 전반적인 어획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 다 고 밝혔다.

퓨 자선신탁에 따르면 일부 회원국은 어획전략 실 시 일정을 6년 연기하기를 원한다.

회원국들은 또한 올해 채택될 예정인 남태평양 날 개다랑어의 어획전략 채택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 다 는데 동의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23일자



美, 태평양 도서국과 정상회담 추진

인도·태평양 패권 경쟁 가열

백악관은 9월28~29일 워싱턴에서 태평양 도서국 지도자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솔로몬 제도가 미 해안경비대(USCG) 소속 경비함 '올리버 헨리'호와 영국 해군경비정 'HMS스페이'호의 기항을 거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이다. 솔로몬제도는 201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으며 지난 4월에는 중국 정부와 군 병력·군함 파견을 허용하는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백악관은 지난 9월 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깊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보

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로네시아, 마셜제도, 팔라우, 나우루,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사모아, 투발루, 통가, 피지 등을 정상회담에 초청했다.

백악관은 "정상회의는 기후 변화, 전염병 대응, 경제 회복, 해양 안보, 환경 보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발전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한 우리의 확대 및 발전 협력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6일자

키리바시 경제, 참치 어업 의존도 지나치게 높아

국가 수입 약 80%가 입어료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키리바시 경제는 원양 선단 입어료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키리바시 국가 수입의 약 80%가 참치 선단 입어료이다. 연구에 따르면, 키리바시는 환경 문제 및 폐기물 관리에 시급히 대처하고, 동시에 관광과 같은 대체 수입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키리바시는 정치·경제적 관계 증진을 대가로 한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 대상 지원 패키지조 인해 수교국을 대만에서 중국으로 선회했다. 키리바시 수역에 어선을 보유한 중국 어업자 중에는 중국의 주요 참치 가공·유통 기업인 Zhejiang Ocean Family가 있다.

중국은 키리바시에 어업과 관광 관련 교육을 약속했다. 키리바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중국 하이난 성에서 이틀간 개최된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레저 수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남국제어업관광협력 시범구역(South International Fishery Tourism Cooperation Demonstration Zone)' 출범 협약도 체결됐다.

키리바시는 또한 2021년 제1회 중국-태평양 도서국 어업 협력 개발 포럼에서 피닉스 제도 보호 구역을 상업적 어업에 개방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8월 19일자



투발루, 불법 조업 방지 위해 EEZ 위성 스캔

전체 EEZ 약 80% 추적

투발루 EEZ에 대한 위성 스캔은 2021년 세계은행(WB)이 자금을 지원한 태평양도서국지역해양추적프로그램(PROP)의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무허가·미신고 선박의 어업 활동 규모를 추적해 도표로 표시하기 위한 해당 프로젝트는 투발루 수산청과 뉴질랜드 기업 Starboard Maritime Intelligence사(社)가 추진한다.

75만 km²에 달하는 투발루 EEZ의 80%를 추적하는 위성 스캔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처음 사용된다. 위성에는 각기 다른 센서가 사용되며, 선박에 탑재된 항법 레이더 위치를 표기하고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aperture radar)를 통해 해수면을 촬영하는 등 독립적인 탐지 수단을 제공한다.

위성 탐지와 신고된 선박의 위치는 Starboard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연결된다. 필수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위치를 보고하지 않은 선박이 탐지되면 어둡게 표시된다. 선박이 어둡게 표시된다면 해당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서 식별을 회피하려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작전의 규모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태평양 수산위원회(FFA)와 뉴질랜드방위군(NZDF)은 항공·해상 순찰대 스캔 등의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신기술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접목하면 어업의 모니터링·통제·감시(MCS)가 대폭 향상될 수 있으나, 신기술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팀은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으며, 현지 역량을 구축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학습 내용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계획 중이다.

Starboard의 선임 과학자 Moritz Lehmann 박사는 “지난 1년간 12개 이상의 신규 상업용 선박 탐지 위성이 온라인 상태가 되었으며, 2023년 말 이전에 수십대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감시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2년 8월 12일자

NOAA, “태평양 참다랑어 개체수 반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새로운 자원 평가에 따르면 태평양 참다랑어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NOAA 관계자는 성명에서 태평양 참다랑어 산란 자원 생물량이 1996년부터 2010년까지 감소한 이

후 어획 제한으로 인해 치어가 크게 증가해 2019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채택한 첫 번째 재건 목표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8월 17일자



日 7월 냉동 참치 원어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255톤 수입

어종·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누계
날개다랑어	한국	113	6	16	96	44	98	158	531
	대만	625	298	49	951	-	635	412	2,970
	바누아투	-	1	71	522	436	301	-	1,331
	기타	15	15	-	2	26	146	45	249
	소계	753	321	137	1,569	506	1,179	614	5,079
황다랑어	한국	221	210	596	513	539	163	331	2,573
	중국	47	284	120	430	550	553	207	2,191
	대만	603	1,031	1,318	2,425	1,603	1,601	607	9,188
	필리핀	123	-	131	493	69	50	-	866
	인도네시아	-	-	-	-	-	-	25	25
	미국	-	-	-	-	-	-	-	0
	바누아투	148	24	72	103	248	249	381	1,225
	피지	23	50	-	-	-	68	62	203
	키리바시	29	-	-	-	101	135	33	298
	마셜제도	551	-	149	50	51	50	-	851
	기타	564	587	568	1,316	410	815	555	4,815
	소계	2,309	2,187	2,954	5,329	3,573	3,685	2,210	22,247
눈다랑어	한국	11	30	27	113	412	299	255	1,147
	중국	177	467	502	592	339	1,409	574	4,060
	대만	1,372	2,158	2,438	4,084	1,632	3,329	1,060	16,073
	세이셸	103	874	310	792	526	671	177	3,453
	바누아투	138	318	47	629	490	790	114	2,526
	기타	135	32	207	110	239	156	537	1,416
	소계	1,937	3,880	3,531	6,319	3,638	6,653	2,716	28,674
남방참다랑어	한국	449	-	-	-	-	-	-	449
	대만	95	5	-	2	4	1	-	107
	호주	-	-	-	-	-	-	1,547	1,547
	소계	544	5	-	2	4	1	1,547	2,103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9월 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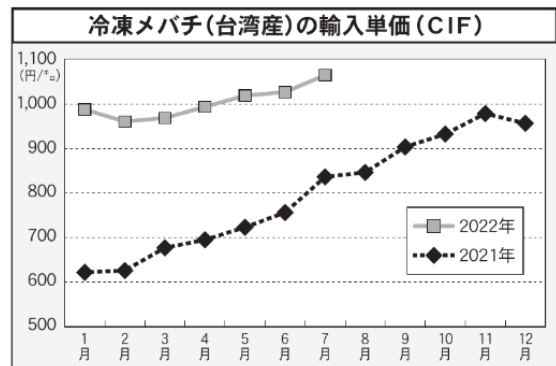
日 7월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반입량 급감 약 59% 감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참치류의 7월 수입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574톤(2021년 동월 대비 25% 감소), 수입액 10억 8,400톤(0.4% 감소), 냉동 제품 1만 1,156톤(23% 감소), 131억 9,800만 엔(11% 증가), 가공품 4,278톤(8% 증가), 33억 500만 엔(36% 증가)를 기록했다.

냉동 눈다랑어 GG(아카미, 내장 제거) 수입량은 2,716톤(40% 감소)으로, 어선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겹쳐서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던 6월 수입량(6,653톤) 대비 대폭 감소했다.

냉동 눈다랑어 GG의 주를 이루는 대만산 수입량은 1,060톤(59% 감소)이며,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은

1,065 엔(27% 상승)으로 6월 가격(1,026 엔) 대비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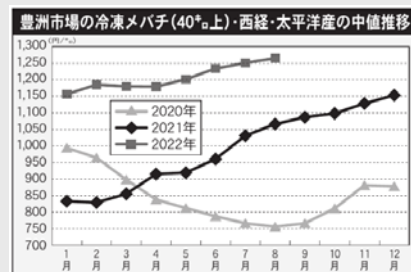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9월 3일자

日 도요스시장 냉동 눈다랑어 kg당 1,265 엔 상장수 8,524마리

도요스시장에 따르면, 8월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 상장 마릿수는 8,524마리(지난해 동월 대비 5% 감소)로, 또 다시 1만 마리 미만을 기록했다.

대형 눈다랑어 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경·태평양산(4,171마리)의 kg당 평균 중간가격은 1,265 엔(지난해 동월 대비 19% 상승)으로, 7월 가격인 1,251 엔 대비 소폭 상승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9월 13일자



에콰도르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11% 감소

에콰도르의 EU 수출 영향 가능성

2022년 상반기 동부태평양의 총 참치 어획량은 다소 증가했으나, 에콰도르 어획량은 가다랑어 어획량 감소로 인해 급감했다. 그러나 에콰도르와 멕시코 모두 황다랑어 어획량은 증가했다.

에콰도르 선단의 2022년 상반기 가다랑어 어획량은 9만 8,255톤으로, 2021년 상반기 대비 1만 8,073톤(16%) 감소했다. 2020년 상반기 어획량(13만 971톤)과 비교하면 약 3만 2,000톤이나 감소했다. 이는 20ft 컨테이너 기준 1,000대와 비슷한 수치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800만 달러의 매출 감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소로 인해 가공업자들이 유럽 구매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게 되며, 에콰도르에 대해 원산지 규칙 면제로 면세 혜택을 주는 EU 시장으로의 매출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 에콰도르의 2022년 EU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에콰도르의 상반기 눈다랑어 어획량은 9,819톤으로 FAD 가다랑어 어획량과 함께 감소했다. 그러나 황

다랑어 어획량은 3만 1,123톤으로 4,548톤(17%)이나 증가했다. 이는 스쿨조업에서 성체어가 많이 어획된 것이 원인이다.

황다랑어를 주 어획 대상으로 하는 멕시코의 상반기 황다랑어 어획량은 7만 2,457톤으로 5% 증가했다. 멕시코는 주로 현지 시장에 판매하는 자국 내 가공 산업이 큰 편이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6,543톤으로 76% 증가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증가로 관측된다.

지난 수년간 에콰도르의 상반기 참치 어획량은 약 15만~15만 4,000톤이었다. 에콰도르 선망선단 어획량은 2020년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2015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멕시코 선단은 큰 변화 없이 꾸준한 어획량을 기록했으며 올해 소폭 증가했다.

파나마 선단의 가다랑어, 황다랑어 어획량은 선망선 등록 증가에 힘입어 각각 14%, 19% 증가한 3만 521톤, 2만 2,491톤을 기록했다. 베네수엘라의 황다랑어 어획량은 35% 증가한 2만 4,478톤이나, 가다랑어 어획량은 약 20% 감소한 4,201톤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10일자

중국 어업회사, 참치 선망선 2척 건조

건조 비용 5,360만 달러

중국 어업회사 Shangdong Zhonglu Oceanic Fisheries는 최근 참치 선망선 2척을 진수했다. 선망선을 건조한 조선소는 Mawei Shipbuilding이다.

‘Tailong 7호’와 ‘Tailong 9호’는 전장 76.73m, 깊이 7.7m, 설계 흘수 4.75m이다. 건조 비용은

5,360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Mawei Shipbuilding에 따르면 건조 기간은 9개월 이상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12일자



해바라기유 가격 정상화 시작

대두·올리브유 가격 여전히 강세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한 식용유 중계업자에 따르면 현재 유럽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유 공급이 선박과 트럭 등을 통해 재개되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의 9월 선적분에 대한 FOB(본선인도) 가격은 톤당 1,355 달러였고, 10월에는 톤당 1,360 달러이다. 지난 3월 해당 제품의 가격은 톤당 2,500~3,000 달러였고, 2월 중순에는 톤당 1,400~1,500 달러였다.

에너지 및 상품 정보업체인 S&P Global Commodity Insights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유는 현재 루마니아 남쪽 항구와 가까운 다뉴브강 내륙 항구를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서부 국경의 육로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오데사 항에서도 해바라기유 운송이 재개되어 식물성 기름 양대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로 선적되고 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의 8월 채소가격지수는

163.3 포인트로, 7월 대비 3.3% 하락했다. 2021년 지수(165.9 포인트)에 비하면 소폭 하락한 셈이다. 이러한 하락세는 대두유의 높은 가격을 상쇄하는 야자·해바라기·유채씨유 등의 가격 하락 때문이다.

대두유 가격은 소폭 반등했다. FAO에 따르면 이는 미국 내 콩 생산이 악천후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주 원인이다. EU에 따르면 미국 수입 대두유의 8월 평균 가격은 톤당 1,623 달러였다.

국제올리브유위원회에 따르면 버진·엑스트라 올리브유의 가격, 특히 전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이탈리아 Bari산과 스페인 Jaén산 가격이 수개월 동안 상승세이다. 8월 초 Jaén산 버진·엑스트라 올리브유는 톤당 3,707.75유로로 7월에 비해 4%, 두 달 전에 비해 10% 더 상승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2일자

소금 가격 상승에 선망선 선주 부담 늘어

공업용 소금 가격, 에너지 및 물류비용 증가로 상승

유럽 소금 거래상에 따르면 공업용 소금 가격은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순수진공건조(Pure dry vacuum, PDV) 소금 제조 비용은 생산 공정에서 많은 양의 가스와 전기가 필요해 다른 형태의 소금보다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다. 2021년 초 PDV 가격은 톤당 약 70 유로였으며, 그 이후 급등했다. 현재 가격은 250 유로로

257% 상승했다.

한편, 천일염(Solar salt) 가격은 물류비용 증가로 지난달 25 유로에서 현재 30 유로로 상승했다.

선망선은 참치 냉동을 위해 소금을 사용하고 있다. 태평양수산위원회(FFA)에 따르면 76m 이상 선망선 1항차당 사용되는 소금의 양은 평균 80톤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7일자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상승, 1,525 유로

어획량 예상보다 많지 않아

현재 세이셸 가다랑어(1.8kg 이상) 현물 가격은 지난 달 톤당 1,425 유로 대비 7%(100 유로) 상승한 1,525 유로이다.

인도양 선망선단 어획량은 현재 예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양 참치 가공업체인 세이셸 IOT와 모리셔스 Princes Tuna는 올해 상반기 동안 캔·식용유 조달 관련 물류 문제, 높은 에너지 비용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생산 능력이 3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도양 내 잉여 참치는 방콕, 만타 등으로 향했다.

또한, 올해 타이 유니온 가나 공장의 참치 수요를 대

서양 어획량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인도양 공급이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황다랑어 가격은 8월에 2,875~2,900 유로 사이에서 움직이며 거의 변화가 없었다. 황다랑어(10kg 이상)는 2,900 유로가 마지막 현물 거래 가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에서 어획된 대형 황다랑어가 프랑스 시장으로 향하는 원어 제품 생산을 위해 세이셸의 IOT 가공 시설로 운송되고 있다. 이는 세이셸 황다랑어 가격이 높은 운송비를 감당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9일자

하와이 참치 연승어업 MSC 인증 취득

눈다랑어·새치 연승어업 대상

하와이연승협회(HLA)의 새치, 눈다랑어, 황다랑어 어업이 해양관리협회의(MSC)의 지속가능 어업 인증을 취득했다.

하와이 어업이 MSC 프로그램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평가기관인 ControlUnion UK가 16개월 동안 검토를 진행했다.

평가는 HLA 회원사가 운영하는 천해(shallow set) 새치 연승어업과 심해(deep set) 참치 연승어업

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HLA 선단은 142척의 지역 소유 어선으로 구성된 하와이 최대의 식품 생산 산업이다. 천해 어업은 야간에 새치를 어획하고, 심해 어업은 주간에 눈다랑어를 어획한다. 옵서버 커버리지는 천해 어업이 100%, 심해 어업이 최소 20% 이상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9월 12일자



그린피스, 범블비 참치캔 공급망에 문제 제기 IUU, 강제노동 어선에서 참치 조달 주장

그린피스는 9월 1일 ‘거짓된 나의 어획물: 우리 참치 캔의 신뢰할 수 없는 추적 가능성(Fake My Catch: The unreliable traceability in our tuna cans)’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범블비사가 미국 소비자에게 말하는 것과 조사 중 밝혀진 것 사이에 높은 수준의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 제목은 범블비의 추적 시스템 ‘Trace My Catch’를 조롱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73개의 범블비 참치 제품은 119척의 대만 국적 또는 대만인 소유 어선을 포함해 290척에서 조달되었다(Trace My Catch에 제품 코드 입력). 이 중 대만선 13척은 대만 어업 규정을 위반해 대만 수산청 IUU 목록에 등재되어 있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Trace My Catch 사이트의 어장 및 대상 어종과 대만 수산청 조업 허가 수역을 대조해 본 결과, 차이가 있는 어선 28척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린피스는 지난 3년 동안 대만 국적선 또는

대만인이 소유한 원양어선에 승선했거나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27명을 인터뷰한 결과, 몇 가지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사례를 발견했다. 보고서에는 범블비와 대만 FCF사에 어획물을 공급하는 6척의 어선에서 일하는 9명의 선원 모두가 과도한 초과 근무를 경험했고 대부분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린피스는 권고사항으로 범블비와 FCF가 IUU 어업으로 의심되는 어선과 관련된 제품을 시장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 착취 선원, 소매업체, 소비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두 회사에 Trace My Catch의 결함을 조사하고 6개월 이내에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범블비는 IntraFish에 보낸 성명에서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며 “몇 가지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책임있는 노동 관행을 보장하는데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1일자

필리핀, 영국에 참치캔 무관세로 수출 가능 2023년부터 적용

영국과 필리핀은 참치캔을 포함한 필리핀 수출품 3분의 2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면세 혜택은 2023년 초부터 적용된다. 영국은 EU 탈퇴 이후 독자적인 일반특혜관세 제도(GSP)를 구축하고 있다.

필리핀은 2019년 기준 4,600만 유로(4,600만 달러)에 달하는 1만 1,242톤의 참치캔을 영국에 수출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22일자



FAO 글로벌 전채 지침 승인

국가, 지역수산물기구에 정책 개발 위한 표준 제공

FAO 회원국들은 지난 9일 제35차 FAO 수산위원회 (COFI3)에서 전채에 관한 자발적 지침을 승인했다.

이 지침의 목적은 국가, 지역수산물기구, 기타 정부간 기구의 지원이다.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규제 체재를 통합하기 위해 전채 관리 정책 및 규정 개발을 위한 표준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침은 국가와 RFMO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실시하길 권고한다.

- 전채와 관련된 선박이 관련 기구, 연안 또는 항만국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선박이 모든 유형의 전채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당국에 알리도록 함.

- 승인 및 전채 자료의 검증을 용이하게 하는 투명한 보고 절차를 채택해 효과적인 모니터링·통제·감시 조치 허용.

- 전채와 관련된 모든 선박이 어종 및 어획량(부수어획 포함)에 대한 특정 자료가 포함된 신고서 제출.

- 선박 목록, 보고, 승인 및 신고, 옵서버 및 검사 보고서, 위반·제재와 같은 전채 자료 공유.

- 가공된 어류의 종, 제품 형태, 수역, 원산지별 하역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참조하는 보고 절차 수립. 이러한 조치는 '항만국 조치 협정'을 지원할 것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12일자

오만 기업, 황다랑어 개선 프로젝트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위해

오만 수산회사 Seafood Souq와 국제채낚기재단 (IPNLF)은 재단의 어업개선도구(FIT)를 사용하는 시범 프로젝트에 협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목표는 Seafood Souq의 디지털화된 수산물 소매 네트워크를 통해 오만 소규모 채낚기 어업자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획한 황다랑어를 더 큰 시장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만의 채낚기 어획 참치는 주로 자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될 잠재력이 충분하다.

초밥용과 횡감용으로 참치를 구매하는 글로벌 구매자들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였다. 전문가 팀은 어류 처리 및 냉장 보관에 대한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어업자들에게 어획 후 손실을 줄이는 품질 향상 기술을 교육했다. FIT는 회원 및 회원의 어업에 맞춤형 프로젝트 지원 및 자문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24일자



테스코, 공급망에서 100% 옵서버 커버리지 위해 부수어획 완화 조치도

테스코는 당사가 수산물을 조달하는 어업을 대상으로 해양 야생동물 위험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9월 7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테스코는 참치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걸쳐 100% 옵서버 커버리지와 부수어획 완화 조치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는 지속가능한수산파트너십(SFP), 영국 왕실조류보호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 고래·돌고래 보전협회(Whale and Dolphin Conservation), 세 기관에서 수행했다.

부수어획 감사 결과, 연승은 상어·가오리·바닷새·바다거북, 선망은 해양 포유류에게 상당한 위험이 된다. 테스코는 FAD 어업으로 어획된 참치를 허용하지 않지만 이러한 어구의 관리 및 사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 보고서에는 몇 가지 공통된 주제가 부각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부수어획 모니터링이 일반적으로 부족하며, 옵서버 커버리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테스코는 참치 어업 외에도 알래스카 연어,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새우 어업, 아이슬란드 대구 자망 어업, 캐나다 랍스터 통발(pot and trap) 어업에 100% 옵서버 커버리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선망선은 이미 모든 대양에서 100% 인간 옵서버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다.

테스코는 2021년 3월에 자사 취급 참치 전반이 2025년까지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 100%에 도달하도록 어업개선프로젝트(FIP)와 계속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소매업체 Asda는 SFP와 협정을 체결한 후 자망을 사용해 어획한 어류를 조달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모든 유형의 참치 어선에 대한 100% 옵서버 커버리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9일자

日 마루하니치로, 참치 제품 등 가격 인상 다타키, 초밥 재료용 등 약 10~30% 인상

일본 수산 대기업 마루하니치로가 10월 1일 납품분을 기준으로 업무용 식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지난 9월 7일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다타키, 김초밥 재료 등 참치 가공품, 다진 생선가공품, 야키소바, 볶음밥 등 약 270종으로 가격 인상폭은 10~30%이다.

지난 7월 1일 납품분부터 가격 인상된 제품과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루하니치로 측은 원재료 가격 대폭 상승, 포장자재, 물류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9월 7일자



英 Princes, 참치캔 100% MSC 인증 조달 목표 2025년 말까지 실행 공약

일본 미쓰비시 산하의 수산물 가공 기업 Princes 그룹은 2025년까지 자사 브랜드 참치의 100%를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 어장에서 조달하기로 약속했다.

이 계획은 MSC 인증 참치 제품의 조달 비중을 2023년 말까지 25%, 2024년 50%, 2025년 말까지 100%로 늘리는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경우 Princes 브랜드는 MSC 인증 참치 제품을 연간 7,500만 캔(약 1만 1,000톤) 생산하게 된다. 영국에서 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 인증 참치캔의 양은 현재 물량 기준 5배 증가한다.

Princes는 여러 어업개선프로젝트(FIP)를 지난 5년간 지원해 왔고, 현재 이들 중 상당수는 MSC 표준 충족 가능한 수준까지 성장했다.

Princes는 2018년 MSC 인증, FIP 관련, FAD-Free, 채낚기 어업 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참치 원료만을 자사 브랜드에 사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인도양 황다랑어 조달을 2017년 대비 50%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8월 22일자

미국 저소득층, 참치캔으로 소비 전환 인플레이션으로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 찾아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 John Rainey는 최근 인터뷰에서 “저소득 소비자들이 참치캔과 같은 저렴한 육류 대체품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은 올해 6월 40년 만에 최고치인 9.1%를 기록한 이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월 소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4.5%, 계란은 3%, 돼지고기는 3.1% 상승했다. 소비자들은 가격 급등에 따라 햄 등 가공육(deli meats)을 구매하는 대신 참치캔, 닭고기캔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울러, Rainey는 월마트의 고객들이 이제 양이 더 적은 품목을 구매하고 저렴한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private label)와 같이 저렴한 옵션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 미국 소비자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예산이 극도로 빠듯해지면 가장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인 참치캔이나 핫도그로 소비를 전환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18일자



스페인 Calvo, 참치 조달 2/3 지속가능

2025년까지 100% 지속가능 참치 목표

스페인 참치회사 Calvo 그룹은 2025년까지 책임있는 어업 또는 지속가능 어업에서 자사 참치 제품의 100%를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Calvo가 매년 발행하는 '책임 있는 공약(Responsible Engagemen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Calvo가 지난해 참치캔 생산에 사용한 참치의 66.8%가 지속가능한 공급원(주로 브라질, 스페인)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0년 실적 대비 약 6%p 증가한 수치이다. Calvo는 MSC 인증 어업, 강력한 어업개선프로젝트(FIP)의 어업, APR 인증 어업, FAD 미사용 어업, 단순 채낚기 어업으로 어획된 참치일 경우 이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Calvo는 2019년 조달 관행을 포함한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17개의 목표를 포함한 야심찬 5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Calvo는 2025년까지 참치의 100%를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어업에서 조달하고, 완전 추적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Calvo는 소비자들이 자사 제품의 100%를 추적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으나, 2021년 시점에서 모든 원료의 24%만이 추적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Calvo 대변인은 참치에 한해 자사 제품의 100%가 이미 웹사이트를 통해 추적 가능하고, 회사가 구입한 모든 원재료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기술은 아직 소비자들이 완전히 이용할 단계는 아니며,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Calvo가 사들인 MSC 인증 로인의 비중은 1.7%로 낮은 수준이나,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FAD 미사용 원료 12.58%, 채낚기 원료는 16.66%로 2020년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FIP 및 APR 인증 원료의 비중은 각각 43.66%, 34.39%로 다소 감소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Calvo의 자체 선단 조달 비중은 감소했고, 외부 매입 비중이 약 5% 증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10일자

스페인, 참치 선단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전쟁 영향으로 인한 보상금 성격

최근 유럽 위원회(EC)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스페인이 선주에게 보상 형태로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 지원 예정 금액은 약 1,818만 유로이며 스페인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액 배정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했다. 톤수에 따라 선박 당 지원금의 상한선은 3만 5,000 유로이며 하한선은 1,550 유로이다.

스페인 정부는 수일 내 47만 1,000 유로를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17일자



포클랜드 Beauchene Fishing, 신규 트롤선 건조

전장 약 70m...스페인 조선소 건조 예정

스페인 어업 회사 Copermar의 포클랜드 협력사인 Beauchene Fishing이 스페인 Armon 조선소에 2020년 화재로 침몰한 "Baffin Bay"호를 대체할 새 트롤선 건조를 의뢰했다.

새 트롤선의 전장은 70m가 될 것이며, 어업 능력 및 용량 향상과 함께 신규 에너지 및 연료 절약을 최대한 활용하는 최신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Copermar는 스페인 Vigo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포클랜드와 나미비아에서 선단을 운영하고 있다.

Armon 조선소의 현재 작업 목록에는 미국 수산 대기업 Red Chamber Group 아르헨티나 지부의 트롤선(전장 60m)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해양학원

구소의 조사선 3척, 스페인 페리 운송회사인 Baleria의 여객·화물 페리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9월 6일자

아르헨티나 7월 일렉스오징어 수출 급증

7월 수출 15% 증가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물 데이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7월 어업 부문 수출 실적이 일렉스오징어 수출 급증에 힘입어 증가했다.

일렉스오징어 총 수출량은 1만 5,428톤으로 지난해 동기(6,591톤) 대비 134% 증가했고, 수출액은 3,41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1,360만 달러) 대비 151% 증가했다. 평균 수출 가격은 kg당 2.21 달러로 7% 상승했다.

이러한 오징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아르헨티나의 7월 수산물 총 수출량은 5만 3,991톤으로 15% 증가했고,

수출액은 2억 1,019만 3,000 달러로 11% 증가했다.

수출량 기준 상위 국가는 스페인이 1만 1,241톤(수출액 6,600만 달러)으로 1위, 중국(수출량 5,060톤, 수출액 2,260만 달러), 한국(4,561톤, 990만 달러), 카메룬(3,722톤, 437만 달러), 일본(3,601톤, 2,130만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민대구(Hake) 수출량은 12% 감소한 8,968톤, 수출액은 4% 감소한 2,240만 달러에 그쳤다. 평균 수출 가격은 10% 상승한 kg당 2.49 달러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9월 5일자



러시아 명태 H&G 가격, 中 수요로 빠르게 상승 톤당 1,650~1,700 달러

러시아 명태 H&G(머리, 내장 제거) 가격이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산 25cm 이상 명태 H&G의 중국 수출 가격은 CFR(운임포함 인도조건) 기준 톤당 1,650~1,700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명태 H&G 가격은 3월 톤당 1,400 달러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러시아 어업회사 임원에 따르면, 중국 무역업자들은 원재료 확보를 위해 단기간에 100%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사들이고 있다. 러시아 기업들은 필렛에 비해 현금 전환이 빠르다는 이점으로 인해 H&G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원에 따르면 악천후 문제로 인해 러시아 어업 회사들이 베링해에서 명태를 어획할 수 있는 기한은 9월이 마지막이다.

또 다른 러시아 어업 부문 임원에 따르면, 러시아 어업

회사들은 현재 대부분 청어와 연어 어획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명태 H&G 공급이 둔화된 것도 가격 상승 중 하나로 분석된다.

한 중국 가공업체 임원에 따르면, H&G 가격은 지난 몇 주 사이에 톤당 약 100 달러 상승했다. 중국 가공업체의 처리량은 다렌 가공장이 재가동되면서 증가하는 중이며, 이로 인해 H&G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던 다렌 가공시설의 운영이 재개되면서 2022년 1분기 러시아를 중심으로 14만 2,704톤의 냉동 명태를 수입했다. 2021년 1분기 중국의 명태 수입량은 2만 1,764톤에 불과했으나, 2022년부터는 코로나 이전 1분기 수입량(2020년 23만 614톤, 2019년 21만 6782톤)에 가까워지고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8월 30일자

러시아 수산청장, 투자쿼터 제2탄 추진 강행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재표명

2022년 9월 5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연해주에서 개최된 제7차 동방경제포럼의 어업 분야 비즈니스 프로그램에서, 세스타코프 러시아 수산청장은 하원에 법안이 제출된 투자목적 어획쿼터 프로젝트 2탄 설정을 언급하며 다시금 이를 추진할 의지를 표명했다. 수산청장은 또한 업계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투자

목적 어획쿼터 프로그램 제2탄 설정에 대해, 이를 달성해야 세계 어업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수산청장은 팬데믹과 새 국제 제재로 인해 건조 계획이 대폭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 기사 출처: 홋카이도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2년 9월 7일자



中 더블프로즌 명태 필렛 가격 상승

추가 가격 상승은 어려울 듯

러시아와 미국 PBO(가시 제거) 명태 필렛 가격 격차가 심화되면서, 중국 가공업자들은 더블프로즌(double-frozen, 냉동 상태에서 해동되어 가공된 후 2차 냉동된 제품) 필렛 제품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B시즌 싱글프로즌(single-frozen, 1차 냉동) PBO 가격은 참고 인도 기준 톤당 5,000~5,200 달러, 러시아 싱글프로즌 PBO 가격은 톤당 4,500~4,700 달러(마찬가지로 참고 인도 기준) 수준이다. 유럽에 운송되는 중국 더블프로즌의 CFR 기준 가격은 톤당 4,400~4,500 달러 수준이다. 중국 가공업자들은 원재료(러시아산 명태 H&G(머리, 내장 제거)) 가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필렛 가격을 추가 인상하려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명태 부문 관계자는 “러시아와 미국 간 싱글프로즌 명태 제품 가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진 것은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명태 부문 임원은 “알래스카와 러시아 PBO의 가격 격차, 러시아 PBO와 중국 더블프로즌과의 가격 수렴은 확실히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캐나다의 러시아산 수입 금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어업 회사의 러시아 판매 담당자는 피시핑거(생선살을 막대 모양으로 잘라 튀김옷을 입혀 튀긴 것) 가격이 기록적인 상황에서 유럽 소매 수요의 불확실성은 시장 정점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B시즌 러시아 PBO 미계약분 물량에 대한 거래가 톤당 4,500 달러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매우 높은 중국 수요로 명태 H&G 가격이 상승해 톤당 약 1,700 달러에 이르지만 더블프로즌 필렛 가격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8월 31일자

Gidrostroy, 러시아 명태 쿼터 지분 매입

명태 및 기타 어류 쿼터 8만 4,000톤 추가 예상

러시아 경제지 Kommersant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어업 회사 중 하나인 Gidrostroy사(社)가 러시아 재벌 Roman Abramovich의 주요 측근 Efim Malkin과 Irina Panchenko의 Dalneye 그룹 산하 Poronay사의 지분 50%를 매입했다. 해당 거래를 통해 Gidrostroy사는 자회사 Sakhalin Island에 8만

4,000톤의 명태 및 기타 어류 쿼터를 추가하게 된다.

러시아 업계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 위험 때문에 Malkin과 Panchenko가 Poronay사의 공식 소유주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관측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Intrafish,

2022년 8월 11일자



명태 제품 세계 수요 증가 추세

연말 韓·日행 명태 제품 가격 상승 예상

미국 수산업계의 여러 부문이 추가 무역 관세, 코로나19 방역 대책,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를 견디고 있는 가운데, 베링해 명태 제품은 그 어느 때보다 순조롭게 신장 중이다.

미국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 회장 Craig Morris는 현재 유례 없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외식시장 폐쇄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겪었으나 명태 피시 스틱(생선살을 막대 모양으로 잘라 튀김옷을 입혀 튀긴 것) 제품이 재택근무자, 학생, 가족 등의 식사로 유입되면서 미국 내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고정 소비층을 확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농무부는 2011~2016년 동안 연간 300만 달러 가량의 명태 제품을 구매해 왔으나, 2021년에는 3,500만 달러의 명태 제품을 구매했다. 2022년

의 구매액은 5,746만 달러로 대폭 증액되었다. 구매에서 주를 이룬 제품은 피시 스틱으로, 주로 학교 급식 또는 식량원조 프로그램 등으로 공급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명태 선단의 현대화에 따른 최근의 진일보로 인해, 공급 체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기존의 공급 체계는 러시아산 명태 H&G가 중국을 통해 필렛으로 2차 가공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H&G가 중국만이 아니라 일부 서양 국가 등의 세계시장에 직접 공급되기 시작했다.

세계 시장의 연육 수요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어, 2022년 말 한국·일본행 제품의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2년 8월 31일자

러시아-중국 쿠릴 열도 수산협력 추진

어업, 관광, 에너지 개발 협력 논의

중국 국영 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쿠릴 열도의 어업·관광·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을 논의 중이다.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은 관광·석유·가스뿐만 아니라 열도의 수산업에 관해서도 협력의 기회를 논의했다.

Li Xin 상하이정치법학대학 유라시아문제연구소 소장은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한국·일본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면서 쿠릴 열도 경제를 위해 다른 기술원 및 자금원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며, “중국은 상호 요구 및 상호 보완적 경제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이상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9월 12일자



러시아 36주차 냉동어류 가격 상승세

극동, 중서부, 북서부서 7주 연속 상승

러시아의 2022년 36주차 냉동어류 현물 가격이 극동, 중서부, 북서부 지역에서 7주 연속 상승했다.

9월 2일 러시아의 환율은 달러당 60.80 루블로, 이는 루블화가 매주 조금씩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우, 핑크연어, 명태, 태평양 청어, 태평양대구 가격은 각각 kg당 220~255 루블, 110~140 루블, 75~110 루블, 225~260 루블로 지난주 대비 상승했다. 35주차 가격은 각각 kg당 220~250 루블, 110~135 루블, 70~110 루블, 220~250 루블이었다.

7주 전인 2022년 28주차 가격과 비교하면 핑크연어 가격은 55%, 명태 가격 27%, 청어 47%, 대구 가격은 19% 상승했다.

북서부 지역의 36주차 대구, 연어, 청어 현물가격은 각각 kg당 230~265 루블, 230~265 루블, 100~135 루블이다. 35주차 가격은 각각 kg당 230~260 루블, 225~255 루블, 100~130 루블이다.

2022년 28주차 가격과 비교하면 대구 가격은 15%, 연어 가격 32.5%, 청어 가격은 50% 상승했다.

러시아 중부 지역 36주차 연어, 명태, 대서양 고등어 가격은 kg당 235~270 루블, 120~145 루블, 155~185 루블이다. 35주차 가격은 각각 kg당 225~255 루블, 120~140 루블, 150~185 루블이다.

2022년 28주차 가격 대비 연어 가격은 50%, 명태 가격은 32%, 대서양 고등어 가격은 16% 상승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9월 12일자

러 연구기관, 홋카이도 부근 명태·청어 자원 고수준

중기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전망

러시아 해양어업연구기관인 VNIRO 태평양지부는 극동 수역 명태·청어자원이 상업 대상 자원으로써 높은 수준에 있으며, 중기적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발표했다.

특히 홋카이도 남쪽·동쪽 수역 자원과 왕래가 있는 인접한 남쿠릴 수역의 경우도 각 연급군(year-class, 특정 년도에 태어난 집단)이 평균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원 상태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청어의 경우 러시아 Gizhiga계군과 카라긴스

키만계군이 중위(中位), 오호츠크해와 베링해가 고위(高位)이며, 특히 일본 EEZ와 '경제왕래성 자원'인 사할린·홋카이도 계군 자원의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사할린·홋카이도 계군 청어는 서사할린 수역, 동사할린 수역뿐만 아니라 남쿠릴 수역에도 이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개체수 증가로 인해 유망한 상업 자원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 기사 출처: 홋카이도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2년 9월 2일자



노레보 유럽 지부 매출·이익,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

매출 4억 2,900만 달러 기록

영국에 위치한 러시아 어업 대기업 노레보(Norebo) 유럽 지부의 2021년 매출·이익은 유럽 시장이 팬데믹에서 회복되면서 크게 증가했다.

2021년 매출은 4억 2,9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2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886만 달러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인 58만 7,000 달러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노레보 유럽 지부의 매출총이익률(GPM) 또한 1.71%에서 4.04%로 대폭 상승했다. 노레보의 2019년, 2018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340만 달러, 830만 달러였다.

노레보는 발표를 통해 “노레보의 주요 시장은 2021년 초에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제품에 대한 수

요가 1년 내내 강세를 유지해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으며, 2021년 초부터 팬데믹은 노레보 유럽의 재무 상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매출은 모든 시장에 걸쳐서 증가했다. 영국 매출(1억 6,100만 달러)과 유럽 대륙 매출(1억 7,600만 달러)은 전년도 대비 각각 19%, 10% 증가했다.

그러나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기타’ 시장 매출 증가이다. ‘기타’ 시장 매출의 비중은 노레보 유럽의 코로나19 이전에는 14% 정도였으나, 2021년에는 21%를 차지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9월 1일자

알래스카 명태 선단, FISH 노동 인증 취득

선상가공선 14척 대상

미국 연안가공업협회(APA)에 따르면, 총 14척의 알래스카 명태·태평양민대구 선상가공선이 새로운 제3자 노동관행 인증 프로그램인 FISH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

이전에 FISH 표준 라벨 인증을 취득한 어업은 아프리카 나미비아 Nueva Pescanova 그룹의 선단이 유일하다. FISH는 성명에서 현재 파푸아 뉴기니아와 아이슬란드 등 세계 여러 국가의 단체 및 선단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 단체들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인증 기준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지원한다.

APA에 따르면 지속가능 컨설팅 기업 MRAG Americas가 실시한 감사 절차에는 선박 검사, 선원 대상 개인 면담, 회사 채용 관행, 급여 기록 및 고충 처리 기록 검토, 안전 프로토콜 검사, 선상가공선 운영 등 선원 복지에 관한 다양한 방면의 조사가 포함되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8월 25일자



오메가-3 어유 시장, 알래스카 명태 신규 영역?

팬데믹 이후 영양제·보충제 등 매출 성장세

식용 및 애완동물용 어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들은 잠재적인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전 세계 영양제 및 보충제 시장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팬데믹 발생 이후 2019~2020년 동안 미국에서 영양제·보충제 매출이 급성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매출 증가 추정액은 약 4억 3,500만 달러 이상이다.

국제 오메가-3 비영리 협회인 GOE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오메가-3(EPA/DHA) 보충제 매출은 2021년 약 50억 달러이다.

보충제 판매량은 팬데믹 기간 동안 EPA/DHA(오메가-3) 보충제를 "건강과 결부시킨" 소비자들로 인해 급증했다. GOED에 따르면 2023년까지 매출이 매년 5.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보충제 시장으로, 2021년 매출액은 약 1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 관련 뉴스 회사인 Pet Food Processing에 따르면, 어유는 애완동물 사료의 원료로서 연간 5,44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미국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의 CEO Craig Morris는 "지금의 보충제 및 애완동물용 보충제, 식품 분야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기"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명태 어유 수요는 가격 상승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알래스카 명태 및 민대구 수출 가격은 2019년 대비 거의 30% 상승한 톤당 2,239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이후 최고가이다.

GAPP에 따르면 지난해 알래스카 명태 산업은 2만 5,777톤의 어유를 생산했다. 민대구 어유와 함께, 알래스카 명태 어유는 전체 어유 연간 생산량(약 120만톤)의 1.5%를 차지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8월 24일자

러시아 극동 지방, 냉동창고 시설 부족 극심

이용가능 시설, 필요량의 1/4에 그쳐

러시아 동부지역전략센터(Eastern State Planning Center)의 전문가들은 러시아 극동연방관구(Far East Federal District)의 분석을 인용해, 현재 항만 내 냉동시설 수용량은 총 17만 1,000톤이나 어기가 성황일 때 필요한 양은 약 80만톤으로 따라서 사용가능한 양은 필요량의 2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계다가 극동 지방의 냉동시설 위치 또한 매우

불규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의 84%는 연해주에 위치했고, 이 중 6개가 블라디보스토크, 2개가 Zarubino, 2개가 Nakhodka, 1개가 Artem 항에 있다.

다만 분석가들은 11만톤의 냉동시설 증설이 계획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8월 29일자



日 공치 봉수망 중·소형선 첫 양륙

양륙량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

일본 공치 봉수망 소형선이 홋카이도 네무로시 하나사키항에 올해 첫 공치 양륙을 했다. 그러나 귀항한 어선은 1척, 양륙량은 264kg에 그쳤다. 지난해 첫 공치 양륙 당시 귀항한 어선은 4척이었고, 양륙량은 약 3~4톤으로 추정되었다.

가격은 90g대가 kg당 5만 4,000 엔, 80g대 3,834~9,396 엔, 60g대 410~1,242 엔에 형성되었다. 90g 이상은 매우 적었고, 대부분 80~90g인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첫 양륙된 어획물을 '축의(祝儀)'라는 고가에 매입하는 관행이 있는데, 올해 최고가는 지난해 첫 양륙된 공치 최고가(kg당 약 3만 240엔) 대비 약 80% 이상 상승했다.

도쿄 도요시시장에는 약 23kg이 입하되어 지난해 대비 약 2배 가격인 kg당 6만 엔에 판매되었다. 지난해 도요시시장에 첫 입하된 공치의 양은 약 72kg이었다. 아이치현 나고야 어시장에서도 매우 적은

양이 입하되었고, kg당 약 6만 엔에 거래되었다.

한편, 봉수망 중형선(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첫 양륙이 지난 23일 하나사키와 앳케시에서 행해졌다. 하나사키에 양륙된 수량은 약 10척분인 4.7톤이다.

가격대는 100g대 kg당 2,160~3,672 엔, 90g대 kg당 1,836~3,132 엔, 80g대가 756~1,728 엔, 70g대가 302~1,350 엔에 형성되었다.

지난해 중형선 첫 양륙 당시 수량은 약 89톤(하나사키, 10척분)이며, 가격대는 100g대가 고가 1,080 엔을 기록했다. 수량은 지난해 대비 10% 미만이고, 가격은 약 3배 이상 급등했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JAFIC)에 따르면, 어장은 도토(道東, 홋카이도 동부)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공해에 형성되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8월 19일자, 8월 22일자, 일간수산경제신문, 8월 24일자

러시아, 공치 조업 아직 미개시

공해 외국선단 어획량 약 1만 3,660톤

일본 북양개발협회에 따르면, 러시아 과학연구기관인 VNIRO는 러시아 어업자들이 21일 시점에 아직 공치 조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했다. 또한, 북태평양 공해의 8월 중순까지의 외국 선단 공치 어획량은 한국, 중국, 대만을 합쳐 약 1만 3,660톤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에 따르면, 한국·러시아·일본·중국·대만 등 5개국은 지난해 약 9만 3,700톤(전년도 대비 32% 감소, 경제수역 포함)의 공치를 어획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8월 26일자



日 냉동 공치 2022년 6월 말 재고 5,006톤

4개월 연속 5,000톤대

일본 농림수산업성 통계부가 발표한 2022년 6월 냉동수산물재고량에 따르면, 전국 주요 냉동고의 냉동공치 6월 말 시점 재고량은 5,006톤으로, 4개월 연속 5,000톤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월 재고량과 비교하

면 35% 감소했다.

월간 입고량은 442톤으로 30% 감소했고, 월간 출고량은 731톤으로 38% 감소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9월 8일자

연도	월말 재고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2	7,003	6,552	5,730	5,668	5,296	5,006
2021	8,749	11,398	11,028	10,236	9,559	7,804
2020	14,228	12,950	11,891	10,601	9,902	7,89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6,977	9,193	5,759	5,577	7,302	6,986
2020	7,270	6,900	6,089	6,994	8,987	9,248

日 공치 봉수망 대형선 올해 첫 양륙

총 60톤...지난해 대비 약 30% 감소

8월 20일 출항한 일본 공치 봉수망 대형선(100톤 이상)의 올해 첫 양륙이 8월 26일 일본 홋카이도 네무로시 하나사키항에서 이루어졌다. 총 8척이 지난해 대비 약 30% 감소한 60톤을 양륙했다.

어체는 약 80g 전후의 작은 크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가격은 kg당 약 281~400 엔이었다. 지난해 첫 양륙량은 약 90톤, 어체 크기는 100~120g이 주를 이루었으며, 가격은 kg당 약 108~918 엔이었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JAFIC) 및 현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어장은 하나사키항에서 동남동으로 약 1,500 km, 동경 160도 근처의 공해

에 형성되었다. 현 시점에서 어획량이 좋은 어선은 1일 약 8톤, 어획량이 좋지 못한 어선은 1일 1톤 혹은 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JAFIC 담당자는 현재 어획되는 자원이 '주 어군'이 아니며, 주 어군은 9월 하순에 남하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전까지는 다른 어군을 마주치지 않는 이상 어획 상황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선은 현재까지 48척이 출어했으며, 금주 내로 나머지 어선도 양륙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9월 8일자



드라이 컨테이너 운임 개선, 리퍼 위태

전체적인 운임은 하락 추세

해운 운임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왔다. 8월 25일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드류리(Drewry)의 복합세계컨테이너 지수는 26주 연속 하락했다. 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FEU)는 1대당 5,986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9월 운임과 비교하면 42% 낮은 수준이지만 5년 평균인 3,648 달러 대비 64% 높은 수준이다.

태평양 횡단 항로 40피트 드라이 벌크 컨테이너 운임, 특히 중국에서 미국 서부 항구(로스엔젤레스, 롱비치 등)로의 운송 운임이 하락하고 있다.

유럽-남미 노선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타이트하다. 하지만 중국-미국 노선 운임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EU 시장에 참치캔을 공급하는 에콰도르 가공업자들은 더 높은 운임에 직면해 있다.

한편, 글로벌 40피트 리퍼(냉동)컨테이너 운임은 2분기까지 50% 상승했으며 3분기에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냉동 자숙로인과 참치 원어 운송에는 주로 40피트 리퍼컨테이너가 사용된다. 드류리에 따르면 글로벌 40피트 리터컨테이너 1대당 운임은 6,300 달러이다.

드류리의 리퍼컨테이너 운송 연구 책임자인 Philip Gray는 8월 초에 리퍼컨테이너 공급망이 매우 높은 투입 비용으로 인해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했다. 운임이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제품 특히, 저가 식품은 높은 운임으로 인해 판매가 이뤄질 수 없어 운송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Drewry는 일부 리퍼컨테이너 무역로가 안정화되고 있으며 화주가 지속불가능할 정도의 운임 증가에 반발함에 따라 2023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30일자

美 상원의원, IUU 연루 선박 블랙리스트 법안 발의

연루 선박 美 항구·수역 접근금지 조치 추진

Dan Sullivan 상원의원과 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은 IUU에 연루된 선박의 미국 항구·수역 접근 금지 법안을 미국 상원에 발의했다.

지난 8월 25일 상원에 ‘해외 불법수산물어획방지법(FISH Act)’이란 명칭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IUU 어업이 의심되는 외국 선박에 대한 해상 검사를 늘리고, 미국 해안경비대가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와 협력해 선박의 소속 국가가 시정 조치

를 취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또한 미국 정부에 IUU 어업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추진을 요구한다. 그 외에도 이 법안은 “러시아-중국 간 수산물 무역 관계의 복잡성”을 연구하고, 미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IUU 어업자들의 기소를 성공시킬 것을 요구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8월 30일자



인도네시아, 자국 선원 고용국과 선원 보호 협정 추진

선원 안전 보장 목적

환경 뉴스 포털 Mongabay New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 어업자 및 선원을 받아들이는 국가들과 “해상 기반”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해외 자국민 보호 부처의 책임자인 Judha Nugraha는 인도네시아가 현재 한국과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대만·중국과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선원은 대만 원양 선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린피스

는 대만 수산청 자료를 인용해 2019년 6월 시점에서 2만 1,994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대만 연근해 및 원양 어선에 고용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체결된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협정은 20톤 이상의 한국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은 정부 대 정부 계획에 따른 모집 및 배치 메커니즘, 인도네시아 선원을 위한 전용 훈련 센터의 운영과 같은 주요 문제를 다룬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9월 8일자

노르웨이, 8월 수출실적 사상 최고치 기록

수출액 약 12억 달러

노르웨이의 올해 8월 수산물(어업, 양식업) 수출액은 총 125억 크로네(약 1억 2,4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30%나 증가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누적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212억 크로네, 약 2억 1,000만 달러)나 증가한 약 940억 크로네(약 9억 3,300만 달러)이다.

Borge Gronbech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 CEO에 따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8월 연어 수출 실적이 전체 실적 증대를 견인했다. 8월 명태, 송어, 해덕대구 등 흰살생선 부문 실적도 기록적인 수준이었다.

Gronbech에 따르면 올해 유럽의 수산물 가정 소비량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휴일 또는 외식 소비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기 때

문이라고 Gronbech는 설명했다.

8월 청어 수출량은 총 1만 4,000톤을 기록했고, 수출액은 2억 1,000만 크로네(약 2,08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각각 지난해 동월 대비 24%, 48% 증가한 수치이다.

고등어 수출량은 2만 6,900톤, 수출액은 4억 6,400만 크로네(4,61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20% 감소했고, 수출액은 1% 감소했다.

노르웨이의 8월 청어 최대 수출 시장은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였다. 고등어 최대 수출 시장은 중국, 이집트, 일본이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9월 7일자



미국, 인플레이션으로 신선·냉동 수산물 매출액 감소 상온 보관 수산제품은 증가

리서치 업체 IRI와 210 Analytics의 신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8월 신선 수산물 매출액은 6.1% 감소한 5억 400만 달러였다. 냉동 수산물 판매액은 3.6% 감소한 5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상온 보관 수산제품 매출액은 5.3% 증가한 2억 1,300만 달러였다.

상온 보관 수산제품 월 매출액의 전년 대비 성장은 7개월 연속 이어졌다. 올해 8월 매출액은 2019년 8월과 비교했을 때 8% 증가했다.

Roerink에 따르면 상온 보관 수산제품 매출액은 신선 및 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상승과

단위(unit)당 비용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단위당 평균 가격은 지난해 8월에 비해 9.9% 상승해, 2.06 달러였다. 반면, 냉동 수산물 단위당 평균 가격은 11.6% 오른 10.67 달러, 신선 수산물 단위당 평균 가격은 9.3% 오른 9.13 달러를 기록했다.

Roerink는 “어류의 단위당 평균 가격은 16.2% 상승하며 신선 수산물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말했다. 전체 식료품 인플레이션은 7월 13.3%에서 8월 14.3%까지 치솟았으며, 매장의 모든 품목에 영향을 미쳤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9월 13일자

터키 Cemre 조선소, LNG 원양어선 건조 공간·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터키 Cemre 조선소는 혁신적인 최신 원양 선망 트롤선 Selvag Senior호를 건조하여 노르웨이 선단에 인도할 예정이다.

전장 79.50m, 폭 16.20m인 Selvag Senior호는 Skipsteknisk ST-136LNG 디자인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350m³ 용량의 가스 탱크를 전면에 수직으로 부착했다. 이러한 옵션은 수평으로 배치되는 일반적인 수평 탱크에 비해 선박의 공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해당 선박은 정교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액화 천연가스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분의 열에너지로 RSW(해수 냉각) 시스템에 동력을 공

급하고, 여분의 배기 열을 회수하여 전기로 변환하는 등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LNG 시설은 전기 배터리 패키지에 의해 지원된다. 이는 디젤 엔진 세트의 일반적인 기능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동시에 주 엔진의 에너지 요구 곡선(energy requirement curve)을 완만하게 만들고, 도크에도 동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조치를 통해, 해당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존 기술로 건조된 유사한 신조선 대비 42% 감소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2년 8월 20일자



FAO, 10년 후 수생 동물 생산량 14% 증가

어업 6%, 양식업 22% 증가

FAO의 2022년판 세계 어업·양식업 현황(SOFI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수생 동물(해조류 제외) 생산량은 1억 7,800만톤이며 어업에서 9,000만톤(51%), 양식업에서 8,800만톤(49%) 생산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생 동물 생산량은 2030년까지 14%(2,400만톤) 증가해 2억 200만톤에 달할 것이며 증가의 원동력은 양식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업 수생 동물 생산량은 향후 10년 동안 22% 증가한 1억 600만톤이 될 것이며 2027년에 처음으로 1억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업의 수생 동물 생산 비중은 2020년 49%에서 2030년 5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AO 보고서는 수산물 생산량 연평균 증가율이 2010~2020년 4.2%에서 2020~2030년에는 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2030년 어업에서의

수생 동물 생산량은 6% 증가한 9,600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특정 종의 자원이 회복되고 있는 수역 및 수산자원 이용률이 낮은 몇몇 국가 수역에서의 어획량 증가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30년에 21.4k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30년 연평균 성장률은 0.6%로 2010~2020년 1%에서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 둔화 요인은 어업 및 양식업 추가 생산량 감소, 명목상 수산물 가격 상승, 인구 증가 속도 감소, 고소득 국가 등의 수요 포화이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증가율 상위 국가는 오세아니아(12%), 아메리카(9%), 아시아(7%), 유럽(6%)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9월 5일자

EU 소비자, 수산물 가격 폭등에 직면

수산물 물가 지난해 대비 약 11% 상승

EU 공식 통계 기관인 Eurostat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조화소비자물가지수(HICP)는 126.78포인트(2015년 기준년 대비 26.78% 상승)로, 2021년 6월 대비 10.9%, 2020년 6월 대비 약 12% 상승했다.

참치 소비 비중이 큰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지난 1년간 참치 등 식품 가격의 대폭 상승을 경험했다. 이 4개국 중에서도 스페인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0%로 가장 높았다.

EU 참치 가공 부문 또한 생산 비용 상승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참치캔 생산 경제성이 위협받고 있다. 원어, 연료, 소금, 기름, 주석 등 참치 가공 부문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상승했다. 만일 가공업자들이 소매업자들에게 상승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한다면, 올해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9월 1일자



수산물 수입 상위국, EU, 미국, 중국, 일본 순 어종은 연어, 새우, 참치, 대구, 오징어 순

FAO의 2022년판 세계 어업·양식업 현황(SOFIA)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수산물 수출량은 5,980만톤, 수출금액은 1,510억 달러이다. 2018년 사상 최고치 1,650억 달러에 비해 감소했다.

2020년 수산물 명목 수출액은 1976년에 비해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1976~2020년에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6.8% 증가한 세계 상품 무역액 성장과 일치한다(무역량 기준 3.7% 증가). 수산물 수출량은 연평균 2.9% 증가했다.

EU는 2020년 기준 세계 최대 수산물 단일 시장으로 세계 수입액의 34%를 차지했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세계 수입액의 15%를 차지하며 최대 수입국이었다. 중국(10%), 일본(9%), 스페인(5%), 프랑스(4%)가 그 뒤를 이었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훨씬 앞선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수산물 수출액은 180억 달러

로 세계 수출액의 12%를 차지했다. 점유율은 2015년 정점에서 약간 감소했지만 역사적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수출액 기준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은 일본(18%), 미국(11%), 한국(9%)이다.

노르웨이는 두 번째로 큰 수출국으로 110억 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해 세계 수출액의 7.4%를 차지했다. EU는 노르웨이 총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3위는 베트남으로 85억 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수출하며 세계 수출액의 5.6%를 차지했다.

어종으로 보면 연어가 276억 달러로 가장 많이 거래되어 세계 수산물 무역액에서 18%를 차지했다. 새우(247억 달러, 16%), 참치·새치류(146억 달러, 9.7%), 대구·민대구·해덕대구(9.6%), 오징어·갑오징어·문어(6.8%)가 그 뒤를 이었다.

* SeafoodSource, 2022년 9월 2일자

BBNJ 체결 무산

협상 기한 2022년 말까지

유엔(UN) 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협약 5차 정부 간 회의가 8월 27일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지난 8월 15일 시작된 해당 회의의 목적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국가 관할권을 초월한 해양생물 보호 조약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각국 대표단은 2030년까지 육지에서 200마일 이상 떨어진 바다의 30%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회의 소집의 근거가 된 UN 총회 결의안은

2022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정된 회기는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UndercurrentNews는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 조약 체결에 필요한 작업은 2022년 협상 시한을 지키며 비교적 빨리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8월 24일자, UndercurrentNews, 2022년 8월 29일자



33주차 노르웨이 고등어·청어 가격 다시 상승

kg당 16.60 크로네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 최신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올해 33주차 600g 미만 냉동 고등어 수출 가격은 3주 연속 하락한 후 약간 상승했다.

올해 들어 가격이 등락한 결과 32주차 고등어 가격은 kg당 16.60 크로네(약 1.72 달러)로 1년 내 최저 수준에 가까웠다. 33주차 가격은 kg당 17.47 크로네로 5% 상승했으나, 여전히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축에 드는 수준이다. 그러나 2021년 33주차 가격인 kg당 13.97 크로네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수출량은 3,198톤으로, 최근 수개월간 가장 많은 축에 드는 수준이다. 그러나 2021년 같은 주 수출량(7,965톤)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적은 편이다.

33주 노르웨이의 최대 단일 수출시장은 EU이나 수출량은 159톤에 그쳤다. 평균 수출 가격은 kg당

14.10 크로네로, 지난 주의 급락에 이어 또다시 하락했다.

33주차에 600g 이상 고등어 수출 내역은 없다.

냉동 청어의 33주차 수출 가격은 kg당 11.05 크로네로, 지난주 반등한 후 다시 소폭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3주차 가격(kg당 9.41 크로네)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청어 수출량은 32주차 대비 감소한 503톤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축에 든다. 이는 2021년 33주차 수출량(2,333톤)의 1/4에 불과하다.

최대 수출시장인 EU 수출량은 186톤이며, 평균 수출 가격은 kg당 9.20 크로네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8월 26일자

북동대서양 고등어·청어 생물량 증가

올해 여름에 실시한 생태계 조사 결과

노르웨이 해양연구소(IMR)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된 북동대서양 생태계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고등어 생물량(biomass)에 대한 IMR 수량지수는 2021년 대비 43% 증가했다. 개체수(number of individuals)도 43% 증가했다.

2022년에 가장 많이 발견된 연급군은 2020, 2019, 2010, 2011년 급군이다.

고등어는 여전히 노르웨이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지난 2년 보다 서부에 더 많이 분포

했다. 2021년에 비해 무리지어 있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봄 산란 청어는 2021년 대비 생물량이 19%, 개체수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급군은 총 생물량의 58%, 개체수의 56%를 차지했다. 2013년 급군은 생물량의 8%, 개체수의 7%를 차지했다.

청대구는 2021년과 비슷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8월 26일자



바다 일기

이 해 인

늘 푸르게 살라 한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내 굵은 마음을 곧게

흰 모래를 밟으며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위를 바라보며
내 약한 마음을 든든하게

그리고
파도처럼 출렁이는 마음
갈매기처럼 춤추는 마음

늘 기쁘게 살라 한다.





8월 오징어 국내 동향

원양산 반입 줄었으나 연근해 생산량 늘며 전월 대비 생산량 증가

□ 생산동향(8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대비 10% 증가한 1만 2,120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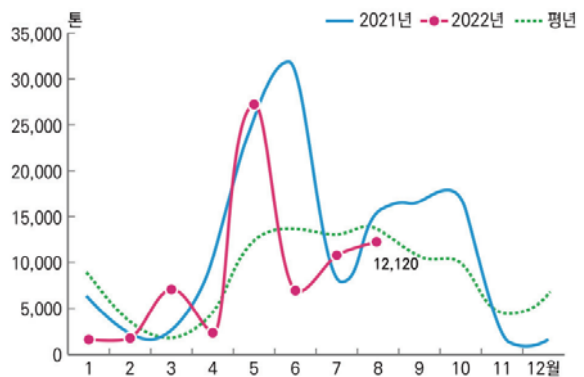
2022년 8월 오징어 생산량은 1만 2,120 톤으로 전월(10,983톤)보다 10.4% 증가했으나 작년(15,554톤) 보다는 22.1% 적었다.

연근해산 생산량은 전월의 두 배인 8,315톤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했다. 아직 동해안 생산은 많지 않았으나 서해안에서의 조업이 활발했다.

지역별 위판량을 살펴보면, 부산공동어시장 위판량이 1,768톤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마산수협에서도 1,388톤, 서산과 군산 수협에서 각각 1,361톤, 751톤이 위판되는 등 서해안 지역의 조업도 활발했다.

원양산 오징어의 반입량은 전월보다 44.3% 감소한 3,805톤으로 작년(7,120톤)에 비해서도 46.6% 적었다.

한편, 8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6만 8,766톤으로 작년(101,933톤) 및 평년(72,254톤) 대비 각각 22.1%, 4.8%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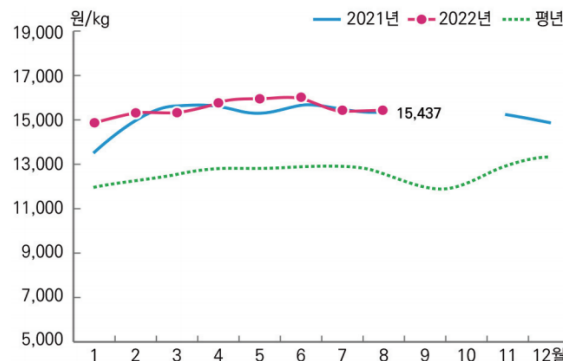
주 : 2022년 8월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해양수산부, 잠정치는 당 센터 추정 결과

□ 가격동향(8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kg당 15,437원으로 보합세)

8월 오징어(냉동)의 도매가격은 kg당 9,475원으로 전월(9,369원)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소매가격도 kg당 15,427원으로 전월(15,407원)과 비슷했다.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어획물의 크기가 커지며 전월(4,383원) 대비 30.1% 상승한 kg당 5,702원이었다. 소비자가격 또한 전월(10,923원) 대비 24.3% 상승한 kg당 13,577원이었다. 반면, 도매가격은 kg당 9,906원으로 전월 대비 13.1% 하락했다.



주 : 2022년 8월은 잠정치임

자료 : aT KAM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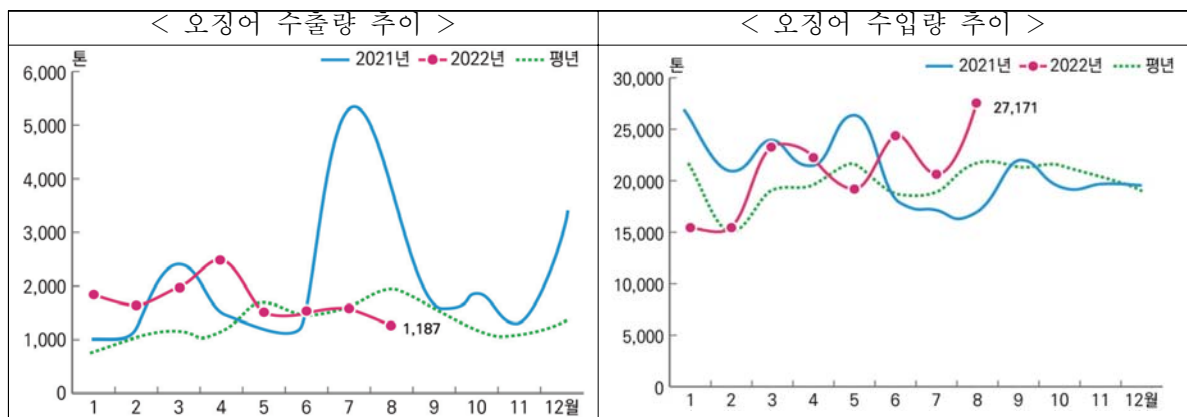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8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31% 증가)

8월 오징어 수출량은 1,187톤으로 전월보다 21.7% 감소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 859톤, 기타는 328톤이 수출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55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으로 275톤, 아이슬란드 209톤 등이 수출되었다.

8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7,171톤으로 전월 대비 31.0% 증가했으며, 작년 동월보다도 61.2% 많았다. 페루산이 1만 992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산 9,002톤, 칠레산 3,010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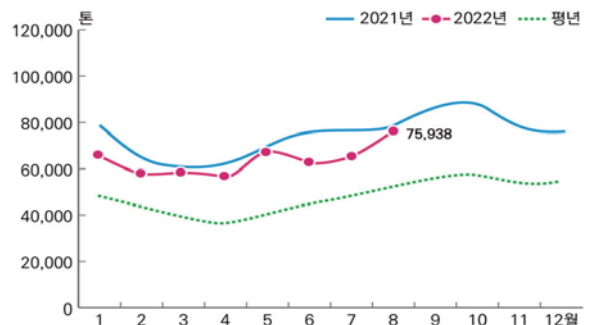
8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16만 6,425톤으로 작년과 비슷했으며 평년 보다는 6.3% 많았다.



□ 재고동향(8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 생산 및 수입 늘며 전월 대비 17% 증가)

8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은 7만 5,938톤으로 전월보다 17.1% 증가했다. 이는 국내 생산이 전월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으며 수입도 30%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연근해산 재고량은 전월 대비 13.7%, 원양산도 18.5% 증가했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측 9월호



8월 명태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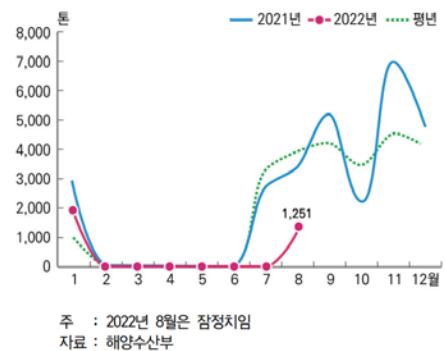
2022년산 원양명태 반입 시작, 반입량 1,251톤

□ 생산동향(8월 원양명태 반입 시작, 반입량은 작년보다 적은 1,251톤)

8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1,251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기에 비해 각각 62.9%, 68.1% 적었다.

올해는 러-우 사태로 인해 작년(6월)보다 늦은 7월 중순부터 북서베링해에서 원양트롤 어업 조업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8월 말부터 원양명태 반입이 시작되었으며, 첫 반입 날짜는 작년(7월 3일)보다 50일 가까이 늦은 8월 22일이었다.

한편, 8월 31일까지 어획된 원양명태는 6,382톤으로 배정된 쿼터의 22.4%를 소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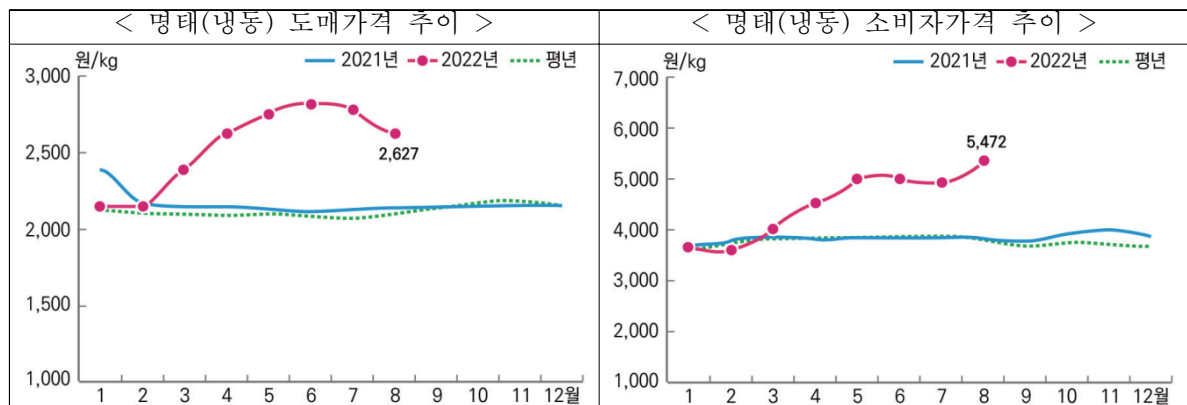


□ 가격동향(8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보다 상승한 kg당 5,472원)

8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전월(2,761원) 보다 4.9% 낮은 kg당 2,627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작년 및 평년 동기에 비해서는 각각 23.4%, 23.6% 높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전월(4,919원)에 비해 11.2% 상승한 kg당 5,472원이었다.

이는 일부 대형소매점에서 평균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고, 낮은 가격에 형성되던 일부 전통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8월 말 일부 대형소매점에서 할인행사가 종료된 영향도 더해져 소비자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작년 및 평년 동기에 비해서는 각각 40% 이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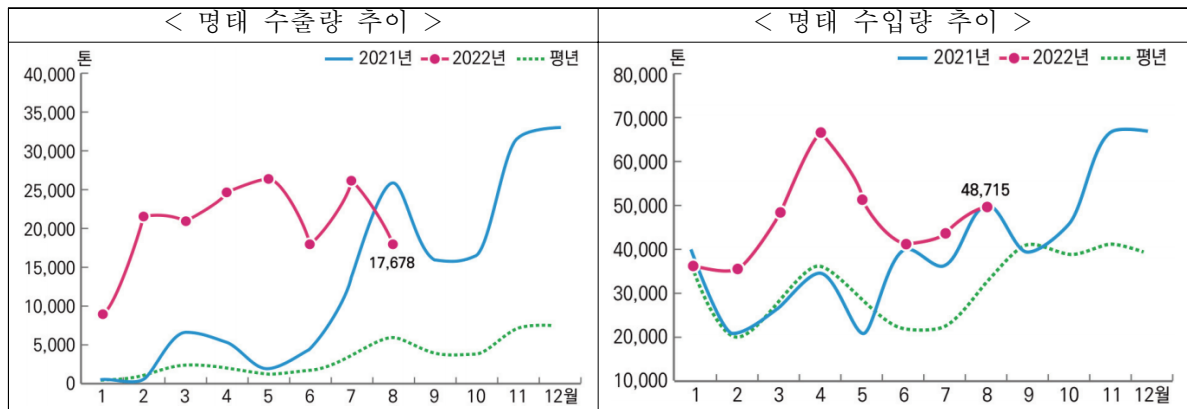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8월 명태 수입량, 4만 8,715톤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

8월 명태 수출량은 전월(26,296톤)에 비해 32.8% 감소한 1만 7,678톤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 수출량이 1만 5,887톤으로 전월(23,922톤)보다 감소했으며, 베트남으로 923톤 등이 수출되었다. 對중국 재수출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32.3% 적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많았다. 8월까지 누적 수출량은 16만 3,338톤으로 작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두 배, 8배 이상 많았다.

명태 수입량은 전월(43,285톤)보다 12.5% 증가한 4만 8,715톤이었다.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적었으나 평년에 비해 41.9% 많았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 수입량이 2만 4,722톤으로 전월(27,639톤) 보다 감소했으나, 러시아산 냉동필렛이 1만 791톤으로 전월(6,378톤)보다 증가했다. 미국산 냉동연육도 전월(5,384톤)보다 증가한 8,804톤이었다. 8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37만 1,568톤으로 작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38.8%, 57.5%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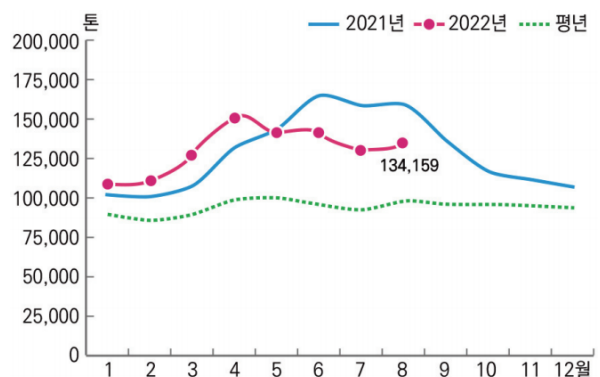


□ 재고동향(8월 재고량, 전월보다 소폭 증가)

원양명태 반입이 시작된 8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전월 (131,633톤)대비 1.9% 증가한 13만 4,159톤이었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15.5% 적었으나, 평년보다는 37.5% 많았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수출입량이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측 9월호



해수부, WTO 수산보조금 협정 영향분석 추진

용역발주...올 연말까지 진행

해양수산부는 WTO 수산보조금 협정문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국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번 용역의 협정상 의무 이행에 따른 영향평가에서는 국내 연근해·원양어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어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국내 어업지원 예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게 된다.

협정문 조항별 국내 제도 검토·분석에서는 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의 국내 수용성을 검토하고 협정상 통보 의무 등 국내 이행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특히 IUU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이행하기 위한 법·규제·행정절차 등 국내 법령을 두어야 할 의무가 명시돼 원양산업발전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서 IUU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

지 규정 및 위반시 환수 등 국내 보조금 운영제도를 검토한다.

또한 협정상 수산보조금 정기 통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업활동의 유형 또는 종류를 통보할 의무와 가능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업의 어족상태, 선박 명칭·식별번호, 어획데이터 등을 통보할 의무가 명시되면서 국내 제도상 해당 의무이행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WTO에 어업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 경영자금 이차지원, 수산자원관리사업, 양식어장 개발지원, 연근해 어선감척 보조금 등에 대해 통보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오는 12월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어민신문

2021년 어선 65,531척으로 확인, 전년대비 213척 감소

해양수산부, 2021년 등록어선 통계 발표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등록어선이 전년대비 213척 감소한 65,531척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어업별로는 연안어선이 37,062척(5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장 관리선 18,915척(28.9%), 내수면어선 3,001척(5.9%), 근해어선 2,492척(3.8%), 원양어선 192척(0.3%) 순으로 조사되었다.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2,460척으로 80% 이상을,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

틱(FRP)로 만들어진 어선이 63,237척(9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안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의 대부분이 5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이며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령 21년 미만 어선이 전체의 2/3를, 21년 이상 어선이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전남, 경남, 충남, 경북, 부산, 전북 순으로 어선이 분포하고 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5	총무, 자금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이형균 이사	589-1607	총괄(겸직)
	김영수 과장	589-1608	기획, 홍보
	김민재 사원	589-1609	원양뉴스, 생산통계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동환 주임	589-1619	노사, 선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	589-1615	참치연승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조성주 과장	589-1617	북양, 품치
부산지부	최상진 사원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	(051) 253-3388	총괄
	이성재 이사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김현애 과장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051-253-3391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해외진출지원팀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기구
	국제협상지원팀	류진호 행정관	044-868-7837	OFIS, 해외수산투자, 행정		-	044-868-7836	ODA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운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48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발행 : 2022년 8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